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十二面

社說

專門學校入學 試驗制의 改正
統一主義의 長點과 短點

一

學務當局에서는 過般各道學務課長及視學官會議의 答申을 經하야 中等學校入學試驗制度를 明春부터 改正하야 從來의 筆記試驗偏重主義를 바리고 口頭試驗과 身體檢査의 三者를 綜合하야 均一히 採點할 方針을 決定한바 잇섯거니와 學務當局은 이에서 나아가서 專門學校入學試驗에도 智德體併進主義로서 筆記試驗外에 口頭試驗及 身體檢査의 二者를 筆記試驗과 均等한 位置에서 評價하는 同時에 中等學校 在學當時의 成績 體格人物等에 對한 學校長의 內申書를 相當히 重視한 參考로 할 方針을 實施할려 한다 이것은 敎育이 人格完成을 主로한다는 原則論에서 보면은 勿論 至當한 方針이나 實際上으로는 中等敎育보담 專門學校는 亦是 優秀한 專門的 技能의 修得이 主要目的이 되는 從來의 現實에서 볼때에는 一大變革的인 方針이라 고할것이다

二

從來 中等學校나 專門學校의 收容力이 入學志願者의 數에 比하야 問題도 안되도록 적은 關係로 上級學校에 入學할 特權을 獲得키 爲하야 入學試驗에 必要한 課目에 置重하야 工夫하고 다른 課目을 度外視한 弊端은 初等學校에 잇서서나 中等學校에 잇서서나 儼然한 事實이엿다. 그러나 中等學校入學에 對한 競爭率보담 專門學校의 그것은 훨신 높앗기 때문에 專門學校 志願하는 中學校 上級生徒들에게 잇서서는 實際上으로 中等敎育에서 享有하는 人格完成 體育向上等은 거의 度外視하고 모든 精力을 集中하야 入學試驗에 必要한 學課에 置重하엿든것은 不可避的인 結果이엿다. 이러한 觀點에서 볼때에 中等敎育獨特의 存在의 意義를 擴充키 爲하야 中等學校入學試驗의 智德體調一主義를 專門學校入學試驗에도 延長한다는 것은 入學準備敎育機關의 感이 初等敎育機關보담 더 濃厚한 現實에서 當然한 結論이라 할것이다

三

敎育이 原理的으로는 人格의 完成을 目的한다는 點에서 以上의 改正案의 主旨는 合理的이라 할것이다. 그러나 入學志願者의 入學試驗受驗를 가장 公正한 基準에서 考査한다는 點에서 볼때에 이것이 반다시 公平無私한 것이될 것이냐 하는데에는 若干의 疑問이 업지 아니다. 웨그러냐하면 筆記試驗은 一個의 客觀的事實로서 公正하게 智能의 優劣을 評價할수가 잇지마는 口頭試驗이나, 身體檢査, 學校長의 內申書에는 多分히 主觀的要素가 介入할수 잇기때문이다. 要컨대 敎育의目的은 不完全으로 改善하는 不斷의 過程이라고하는것이 事實이라 하면는 아즉未完成한 中等學校時代의 不足한 品性, 其他를 不變의 條件처럼 筆記試驗과 同位로 評價한다는것은 機會均等에 不公平한 結果가 될 可能性이 만타 그러나 智能에 限하야는 亦是中等學校卒業者에 잇서서 어느程度까지 [illegible]되는것 이아닐가한다 이러한 모든點에서 와가려 均等한 立場에서 評價가 아닐가한다

重要外交問題에 對해 外相經過를 報告
各顧問官의 痛烈한 質問이 續出
樞府의 質疑應答內容

【東京電話同盟】政府는 最近外交問題에 對하야 政策方面의 態度가 硬化하고 또 樞密院으로부터 에디오피아에 領事館新設에 對하야 政府의 方針을 聽取하고자하는 意見이잇스므로 九日樞府本會議終了後 有田外相으로부터 自進하야 外交一般에 亘한經過를 報告하고 諒解를 求하엿다 同外相은 同日午前十時五十分 宮中控室에서 爲先 對伊、對蘇、對中外交 經過 及對英問題에 對하야 詳細說明하고 諒解를 求하얏는데 此에對하야 各顧問官으로부터 相當히 痛烈한 質問이 續出하엿다 質疑應答의內容은 左와如하다

問 蘇聯政府는 日蘇漁業條約에 아직 調印치안헛스나 現行條約期間인 今年內에 調印을終了할 豫想이잇느냐

答 아직 調印을 보지못한것은 甚히 遺憾이다 外務省으로서는 重光駐蘇大使에 調印促進의 訓令을 發하는同時에 極力그解決을 바라고잇다 政府의見解로는 今年中에 調印할수잇다고確信한다 萬若調印치안흘 境遇에는 斷乎한方法으로써 포츠마스條約에 依하야 獲得한 漁業權을 行使할생각이다 또그리고 調印不能의 境遇에는 數日거듭하야 報告하고 相議할생각이다

問 對中問題가 窮迫한것은 甚히 遺憾이다 이에對하야 綏遠問題에 關한中國側의 誤解其他여러가지 複雜한事情이잇는듯한데 政府는 對中外交에 關한一貫한方針을 가지고잇느냐 確乎한方針을 뭇고십다

答 對中問題의 現狀에 對하야는 政府로서도 甚히 遺憾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極力外交的折衝에 依하야 局面打開策을 講究하고자 努力하고잇다 事態가玆에 至한것은 綏遠問題에 對한誤解 日獨協定等이 主되는 原因이되다고생각하나 綏遠問題에 對하야 日本은 關心을가지고잇스나 何等關係가 업다는것은 日本外務省의聲明으로 明瞭함으로 그 誤解를一掃할려임으로 日中交涉도 漸次로 如何間 打開할수잇슬것이라고생각한다

問 外務當局의 對英方針은如何

答 對英關係는 日獨協定으로何等影響은 업다 當局으로서는 駐英大使로하야금 日英親善을 圖하야 엽때것協議를 進行하고 極力親善關係의 增進을 希望하고잇다

陣沒將兵에 對해 祭粢料御下賜

【東京電話同盟】天皇陛下께옵서는 本年三月二十七日以後의陣沒將兵에對하야 祭粢料御下賜의 御沙汰가잇섯슴으로 陸軍省副官大槻大尉는 九日午後三時 宮內省에 出頭하야 北滿○○에서 戰沒한 航空兵中佐中西保賴氏以下 百十八名分을 拜受하야 各各遺族에게 傳達手續을取하엿다

秩父宮殿下御歸京

【東京電話同盟】秩父宮殿下께옵서는 去一日陸軍異動에 參謀本部附로 御轉任하섯스므로 九日午後七時五分 上野驛着列車로 妃殿下御同伴、今村別當以下를 隨行하옵시고 御歸京하시압섯다 宮家로부터 渡邊御用掛、小田關等이 御出迎하엿는데 殿下께옵서는 今後赤坂表町의 御殿에서 參謀本部에 御通勤하시는一方 明年三月上旬 倫敦에 御出發하압실 御豫定에對하야 御準備하압실터이시다

外相經過報告에 樞府一日諒解
但不充分한 憾도 尙存

【東京電話同盟】樞府에 對한有田外相의 外交經過報告는 日中、日蘇、日英其他一般에 亘하야 詳細히 說明하고 此에對하야 河合、原其他顧問官으로부터 質疑가잇섯는데 樞府側은 外相의 報告로서는 아직不充分한憾이잇스나 對外交涉의 重要性에 鑑하야 이以上追及치안코 爲先諒解의 態度를 取하엿는데 政府에서는 今後에도 機會잇는때마다 有田外相으로부터 樞府에 報告식킬模樣으로 今日의 諒解工作은 相當效果가 잇는模樣이다

今日午後 須磨高第二次折衝

【東京電話同盟】須磨、高宗武兩氏의 第二次事務的折衝은 마침내 九日午後三時부터 高宗武私邸에서 行하기로 決定하엿다 議題는 成都事件을 中心으로 折衝을 進行할터인데 其余의 諸問題는 目下進捗의 豫定이 거의업는것으로 推測된다

英皇帝進退問題 依然眞相不明

【倫敦九日發同盟】英帝에드와드八世陛下의 御進退問題는 一兩日中에 最後的決定을 지으리라고 [illegible]되는데 決定前後에도依然 [illegible]이 [illegible]하야 消息[illegible]에서도 [illegible]인데 [illegible]에 [illegible]하고 [illegible]에서 [illegible]에드와드八世는 [illegible]을 [illegible]하[illegible]실는지 [illegible]하실는지 御決定하시압을로 [illegible]되는데 [illegible]는 前後三時間에亘한 [illegible]關係上 [illegible]한 事情이 [illegible]하야 [illegible]各方面이 모다 [illegible] 一部에서는 [illegible]을 [illegible]하고 잇다 [illegible]公殿下 그로스타公殿下 켄트公殿下도 [illegible]하시고 一致하야 에드와드八世를 支持키로 決定하시엿다고 [illegible] 最後의 [illegible]에서 [illegible] 方이 成立되엿다고한다 심프손夫人은 어떠케해서라도 모ー가 나렉·매레지 [illegible]에 [illegible]中되여잇는듯하다 심프손夫人[illegible] [illegible]士 곳다드氏가 [illegible]쓰고 突然 [illegible]로 간느市에 急行한것은 皇帝의 [illegible] 한[illegible]을 [illegible]하기 [illegible]이것은 勿論 夫人의 [illegible]라는 것은 [illegible]히 口實에 不過하는것이라고 [illegible] 그러나 事態가 이와가티된 以上 皇帝 御退位는 [illegible]하기[illegible]하다고함으로 몰른 [illegible]士가 數日來자조 奔走하는것도 皇帝御退位後의 財産問題에 對하야 協議하는것이라고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이 [illegible]에 [illegible]하여도 [illegible]나아가 [illegible]다 [illegible]이라고 [illegible]된다 [illegible] 에드와드[illegible]太子[illegible]하시는 [illegible]이다 [illegible]一七○一年의 「帝位에關한 [illegible]」에 [illegible]하야 帝位의 [illegible]은 [illegible]決法에 [illegible]하야 帝位의 [illegible]又는 [illegible]會의 法令에依해서만 決定되는 [illegible]關係上 에드와드八世는 上下兩院에 [illegible]로써 御退位의 [illegible]表하신後 新法令으로써 陛下의 御退位를 [illegible]하는 同時에 新帝御卽位를 [illegible]이다 但各自治[illegible]가 法律的으로 新帝의 御卽位를 [illegible]하기까지는 에드와드八世는 帝位에 머무르실터이다

楊、葉兩名에게 死刑을言渡
中山兵曹事件控訴判決

【上海九日發同盟】中山兵曹事件犯人 楊文道 葉海生 兩名의控訴判決은 本日 午後二時二十分第一特區法院에서 前審대로 兩名에게 死刑言渡가잇섯다 또兩名은 直時 南京最高法院에 上審할 豫定이다

佐枝少將離京

最近에 退官한 前朝鮮軍參謀長 佐枝義重少將은 九日午後二時四十八分 龍山驛發 노조미로 小磯軍司令官以下軍部諸將官民多數의 餞送裡에 退城 鄕里로 向하엿다

陸海軍大臣 鄕軍을表彰

在鄕軍人會龍山聯合支部管內의各支部聯合分會는 各其滿洲事變勃發以來 其特殊使命에 基하야 活躍을繼續하고 잇든바 今回陸海軍大臣으로부터 表彰되엿다 平壤支部 表彰狀 一時賜金、平壤聯合分會表彰狀、新義州分會同上 中江鎭分會同上 滿浦鎭分會同上 楚山分會同上 江界分會同上 原昌分會同上 熙川分會同上 義州分會同上 京城支部 表彰狀 一時賜金、京城聯合分會 表彰狀 開城分會同上 新幕分會同上 仁川分會同上 湖南支部 表彰狀 一時賜金、大田聯合分會表彰狀 鳥致院分會同上 大邱支部 表彰狀 一時賜金 釜山聯合分會表彰狀

反革命嫌疑로又復 獨人夫妻를逮捕
레닌그라드에서蘇官憲에게

【레닌그라드八日發同盟】레닌그라드來電에依하면 獨逸人한스맥츠가氏夫妻는 레닌그라드에서 蘇聯官憲에게 逮捕監禁되엿다는바 蘇官憲도 右報道를確認하고 멕츠가夫妻는 스파이 밋 反革命活動嫌疑로 目下 取調中이라는旨를 言明하엿다

新聞統制法 佛下院에서可決

【巴里八日發同盟】佛國下院은八日新聞統制法을討議한結果 五三八對一九三으로 同案을可決하고 卽時上院에回附하엿다 同案의內容은如左하다

一、一切의 新聞紙發行機關은株式組織으로하고 事務取締가發行責任을負함

一、發行責任者는 同紙揭載記事에關한 政府의否定乃至訂正의要請을紙上에發表할것

一、政府는 外國新聞의 輸入乃至國內新聞의 輸出을禁止할權限이有함

一、捏造 乃至 故意로 歪曲된記事로서 第三者를 中傷한 記事를 揭載한 發行責任者는 罰金 乃至 一個月以上 一個年以內의 禁錮에 處함

一、國家各機關에 對한 名譽毁損에 對하야 嚴重取締함

一、新聞關係者에 揭載한 記事의 眞僞에 對하야 辯明의 機會를 與함

南京南昌間鐵道建設 英中借欵等成立

【上海九日發同盟】以前부터 英中兩國間에 進捗中인 京贛鐵道(南京·南昌間)建設에 關한 借欵及鐵道材料購入交涉은 兩國의 重大折衝한結果 八日南京에서 成立되여 近近契約當事者인 鐵道部 團匪賠償金管理委員會 香港上海銀行 中國銀行신지케이트 四者間에 正式調印이 行하게되엿다 契約의骨子는

一、建設總經費 三、○○○萬元

二、右中 一、四○○萬元은 中國側에서 擔當하야 七大銀行에依하야 組織된 신지케이트로부터 鐵道部에 貸付하고 殘額一、六○○萬元(九十萬磅)은 英國에서調達함

가、內四十五萬磅은 團匪賠償金中으로부터 鐵道部에 貸付함 右金額은 英國으로부터 鐵道材料購入에 使用함

나、他四十五萬磅은 香港上海銀行引受와링엔지니야·링코포레이순의 材料購入에 使用함

三、團匪賠償金管理委員會는 신지케이트로부터의 借欵一、四○○萬圓及 香港上海銀行으로부터의 借欵四十五萬磅에 對하야 鐵道部에 一、八七七萬元을 貸付함 同時에 減償基金委員會를 새로히 組織하야 管理함

獨蘇關係惡化의眞因
히氏의眞目的은 東進政策의實現 ㊀
뉴욕타임스紙 莫斯科特派員 월터·듀란티

唯一한 問題는 나치스의 攻擊目標가 무엇인가하는點이다 히틀러의 이른바 「獨太와맑스主義」에 對한 憎惡는 그의 눈을 東方으로 向케하엿다。 그러나 東方에서 東方에의 發展이 獨逸의 決戰이 아니면 안된다고 宣言하고잇다。 그는 뉴렌베르히市에서의 演說中에서 우랄山脈의 豐富한 資産物及 우크라이나地方의 豐饒한 農産物 등에 一一히 詳細히 論하엿다。

나치스의 軍事經濟計畫의 特徵의 하나가 만흔 機械와 材料와 熟練한 人員을 使用하야 獨逸國內를 縱橫으로 通하는 大自動車路를 일으킨 둘이 업는 快速度로 建造하는 것은 實로 意味深長하다。 佛國을 對抗함에는 이러한 道路가 必要치안흘것이나 蘇聯을 攻擊하는데에는 그것이 絶對로 必要하다。 ◇

最後에 獨逸의 行動에 針路를 決定할 有力한 經濟的政治的 要因을 드러본다면 다음과가튼것이다。 第一은 豐饒한 穀物耕作地인 도녯츠盆地의 石炭及 鐵을 가지고잇슬뿐만아니라 갈리시아地方의 石油産地를 占領하고 잇는 우크라이나地方의 占領이다 第二는 佛蘭西의 軍事的 威力及 마지노防禦線의 要塞 第三 佛蘇條約 第四로카르노條約、第五英國의態度……

히틀러氏는 佛蘭西의 防禦力을 充分히 알고잇고 또獨逸이 侵略行動을 取할時에 英國은 로카르노協約에 依하야 佛國을 援助할것을 誓約하고 잇는것을 잘알고잇다。 그러나 그英國도 東部歐羅巴에서는 何等 그러한 義務를 지지안코 잇다。 그리고 今日 蘇聯에 對한 英國의 感情은 過去보담 은 조금 나어젓다 할지라도 그것이 全歐洲의 戰爭의 發端이 되지안는限、蘇獨戰爭그것에 依하야 英國이 動할가는 議論할餘地잇는 問題이다。

◇

이러케보면 히틀러氏에 對한 主要한 障碍는 佛蘇協約밧게 이되고따라서 뉴렌베르히市의 獅子吼의 第一目標로 同時에 彼等의 一般政策의 第一目標가 이協約을弱化하고 또될수잇스면 佛國으로하여금 이것을 廢棄하도록함에 잇는것이合理的으로생각된다 由是觀之하면 히틀러氏의 蘇聯攻擊은二重의 目的을가지고잇슴을 알수잇다 第一은 蘇聯과의 協約을 反對하는 佛蘭西輿論을움죽이고 第二에 單히佛國人英國人뿐아니라 世界의 諸國民의 念頭에 그가 蘇聯에對하야 現在 準備하고잇는 戰爭은 決코 復讐의 戰爭이아니오 反基督敎에對한 十字軍을 이르키는것으로 獨逸은 野蠻主義及 混亂에對하야 文明의 選手로서 이러서려는것이라는것을 注入함에 잇는것이다。 ◇

西班牙動亂은 그의對蘇戰爭論의 그리訴訟ㅅ조차못한 原因과 獨伊 人民잇는데 絶好한機原因을 提供하엿다 그는 一九一四ー一九一八年大戰時의 獨逸側에 對한 世界輿論의 結果를 잇지아니하엿다 그리고 그는 西班牙의 事件이 그의意의 持論인 데모크라시(佛國과 西班牙의人民戰線)가 『볼세비킨』의 毒素를 傳播하는 水路이라는 놀음目를 高調하는 好機會임을 敏感하게 捕捉하엿다 蘇獨對立關係의 眞正한原因은 實로 이곳에잇는것이다。

蘇聯側으로보면 獨逸에 對한 對蘇關係는 過去에 實際上으로는 업섯든것이다、西部戰線에서의 獨逸의 擴張가 自國的으로(브레스트·리똡스크』條約(露獨單獨和條約—譯者)을 取消한 爾來 업섯다 그러나 今日에는 그것이 確實히잇다、蘇聯의頂上에서부터 全蘇西亞國民은 只今은 獨逸이 自己의敵이라는 것으로 생각하고잇다。 그리하야 攻擊하기에 조곰도機會를 엿보고잇슬뿐이다 獨逸의 侮辱과 罵口는 蘇聯國內의 露西亞民衆의 새로운 自尊心에깁히 찌히워 드러갓다 多數한 國家에 對한 獨逸의 外交的活動및 反蘇宣傳은 深刻한怨恨을 蘇聯人의胸中에 품어지게하엿다 그리고 獨逸의 軍備大擴張은 産業的發展의 煩悶에서겨우若干의 報酬를 獲得하려고하고잇는때 마침내 蘇聯으로하여금 同樣의 軍備的努力을하지아니치못하게 하엿다

外地二官制改正案 樞府本會議可決

【東京電話同盟】樞密院定例本會議는 九日午前十時 宮中東溜間에서 天皇陛下親臨下에 開會、平沼、荒井正副議長以下 各顧問官 村上書記官長、政府側 廣田首相 有田外相以下各大臣、次田法制局長官其他關係官이 出席하야 御諮問案은 如左하다

一、樺太廳官制中改正의件
一、南洋廳官制中改正의件

南方經營의 積極的展開의 必要에 鑑하야 內務、拓務의 兩部를 新設하고 專任部長을 置하고 現在의 農林部를 殖産部로 고치는同時에 部長 技師 屬技手 警部 警部補 各一名을 增員함

務部는 地方、財務、警務、土木、拓殖部는 殖産、水産、交通의 各課를 統轄하고 또長官官房에 調査課를 新設하며 同時에 部長二名 奏任事務官二名 屬四名 技手六名 視學、警部 警部補各一名을 增員함

의二件을 上程하고 村上書記官長으로부터 審査報告가잇슨後 審議採決에 들어가 異議업시 可決 天皇陛下께압서 入御하압시사 閉會 繼續하야 有田外相으로부터 日獨協定의締結 日伊協定問題 關聯한各國의反響及 日蘇漁業調印遷延의事情及 그對策 日中交涉對策及 今後의方針等一般外交方針에 關하야 詳細히 報告 說明하고 諒解를求한後 正午散會하엿다

今日本紙朝刊 夕刊合十六面

夕刊後市況 九日

◆大阪 短期 氣配◆
大新 六七七○(不變)
鐘新 一八二五○(一○高)
日產 七六八○(一○低)
東新 一三八九○(不變)

◆橫濱 生糸 後引◆
當限 八五○○ 先限 八三○○

◆藤井 人絹 後引◆
當限 六六三○ 先限 六四五○

人事·集會

◆周佩九氏(在京華商總會主席)九日午後七時半 市內金閣園에서 新任披露宴을 開設

◆中野正剛氏(代議士)十日午前二時五十八分着入京同日午後發北朝鮮에

◆金東元氏(本社顧問) 九日朝入京 中央호텔에 投宿

名古屋 清名問屋 高級萬年筆 新製品 連鎖店募集 三京商會

特許石油下向ランプ 特許ガソリンランプ 名古屋市中區古渡町四 合名會社 柴田商店 カタログ進呈 特約店募集

ダンボール入國折疊式 掛洋服收納器 一個代金 二圓九十錢 送料 一個九十錢 二個一圓五錢 名古屋市中區老松町 伊藤利商店 長サ三尺八寸

商報進呈 ハクト印 スヤリメ 名古屋南大津町 田組與商店 電話中二七○一番 振替名古屋七十七番

スハラシイ意匠の目のサメル樣な印刷 富士紙工社 名古屋石町

フトン袋 大安賣 長尾商店 名古屋市西區伏見町

京城 金地金銀 賣買分析 合資會社 杉山商會 高價 京城明治町

贈答品에는 明治の菓子 明治製菓株式會社

登錄商標 거북선 고무신은 거북선 京城東大門外 서울고무工社 電光一一五九

高山カクブチ製造會社 カクブチ仕組機械 名古屋市赤萩町

第十四回全州藥令開市 藥令開始日 自昭和十一年十二月廿三日(丙子十一月十日) 至昭和十二年二月十日(丙子十二月末日)

靑少年 通信社員募集 昭和通信社

樺太廳官營 海狗腎 新品到着 老少를勿論하시고 陽氣업서 恨歎하시는분이여! 貴下를爲하야 補精腎氣强壯에 神奇神秘한 天惠的 靈効를가진 樺太廳官營捕獲眞品 海狗腎이 到着하얏슴니다 明治四十四年 日、英、米、露 四個國의 條約에 基한 全世界에 唯一한 元素! 堂堂한 實彈的 眞品! 百發百中은 이를두고하는말 發賣元 朝鮮釜山府草梁町 合資會社 大洋貿易社 電話長一一八二番 振替釜山七九二二番

マツミ ポマード 香油

東洋劇場 十日封切 사랑의 힘 산七星님 桃花劇場 坊やは良い子だ 決死の本壘打

團成社 赤道를넘어서 시스코키드 가지노、도、巴里 羅馬太平記 妖鬼이야

新富座 丹下左膳 旋風の荒鷲 三銃士 風流千石やくざ

中央館 永樂町

美人傾國譚

英皇帝의御婚儀問題와 麗人심프슨夫人의半生 NO.3

群鷄一鶴! 才色兼備의夫人

皇帝陛下의寵愛를一身에밧게된重大要素

황제와평민! 황제와평민과의 보통결혼이라도 의상마진 사람들의 이야기꺼리가될터인데 더구나 외국태생의 평민녀자로서 리혼을두번식한 녀자와의결혼문제이랴! 전세계 남녀의 화제에올름은 물론이러니와 그들이 흥미를 가지는바는 심프슨녀사가 엇제서 대영제국황제의 은총(恩寵)을 밧게되엿슬가 하는점이다 심프슨녀사는 그얼골이 어엽부다 그러나 황제는 황태자의위에 계실때에 만흔녀자와 그것도 영국뿐만아니라 구주각국황실의 고귀한녀왕 또는 어여쁜 녀자들과 만히 접촉하섯슬것이다 그러면 심프슨녀사에게는 엇더한 어엽부다는점이외에 만흔장처가 잇지안흘가하는 점이다

庭園에서 어환담하서는 황제폐하와 심프슨부인

사랑! 특히 남녀간의 련애관계에 관하여는 당사자가 아니고는 어째서 서로사랑하다는것을 대답할수업는것이다 사랑은 맹목적이라고하지안하엿는가? 이런점으로보아 어째서 심프슨녀사가 황제의 은총을 밧게엿느가를 알려고 하는것부터 쓸데업는 문제일른지 모르나 여하튼 녀사는 황제의 은총을 바들만한 장처를 만히 가진듯이 들린다

×

심프슨녀사는 영국사교계에서 가장평판이 놉흔미인으로 아니나 고상하고 정리지이며 자세가조코 눈이미려하야 한번 우스면 만인을뇌살(惱殺)할뜻하고 말소리가명랑하야 음악적인 동시에 귀엽기를 조와하야 여러나라말에능란한 관계로 여러방면서적을 랄독하야 사교계에출입하는 반면에서 색생활을질기는점이 아마나 영국황제의 총애를 한몸에 모호게된 점들인듯하다 황제께서는 황태자시대부터 평민적이시어 국내를 샅치샅치려행하시며 세민들의 생활에 만흔 관심을 가지서서 실업문제(失業問題)와 로동자주택문제등에관하야 친히시찰하신보고서를 발표하사 로동상(勞動相)을 독려하신일이 만흔신데 이일을 리면에서 완전히 리해하고 원조장려하신사람은 다른사람이 아니라 이심프슨녀사엿다 녀사는 련세로 두가지문제에 관한 만흔서적을 읽고 재료를모아서 황태자에게 이르기까지 황제폐하의 일을 조력하엿다 황제께서는 아비와말한가리 여러곳동안 사교계에 출입하사 만흔 부인들을 잡아시고잇스나 그들이 말하는것은 항상 신변에 관한 출한문제에 국한되야 황제께서는 항상 그들 부인들의 성벽한것에 불만하신뜻을 말씀하섯다고한다

그리고 녀사는 사교계에출입하는반면에 한적한 정원생활을 질기는녀자로 경제에 면려하야 이가정리로도 가황제폐하의취미에 마즌듯하다

×

그러나 이러한점은 에드워드 황제폐하께압서 제위를거르시고 결혼하야서려는 문제가 이때남후에 모다가그럴것이라고 추측하야 이러케저리케 말하는것으로 참으로어떠한점에 사랑의 실마리가잇는지는 당사자가아닌우리로서는 역시알수업는 일이라고 말할수밧게 업는수수꺼기이다 (계속)

全滿洲赤化防止策

特殊地帶를設定

(住民은반듯이居住證明을携帶하도록)

間島全省外三省一部에實施

民政部에서具體案決定

【新京】만주국 민정부(民政部)에서는 국제공산당이 중국공산당과 련락을취하야 만주적화공작을 극히교묘히 하는일방 만주공산당에 무기탄약등을 공급하야 세력을 확대하는동시에 중요도시에 밀정을두어 만주국내정을 탐사하야 군사, 국방에 막대한 장애를 끼치므로 이를방지하기위하야 신법안을 입안중이든바 그구체안이 완성되엿스므로 불원에 발표하야 만주국내를 특수지대에 실시하리라는바 그지정된 지역은 흑하성일부(黑河省一部) 빈강성일부(濱江省一部) 삼강성일부(三江省一部)와 간도성(間島省)은 전성으로 전부 판명되엿다한다 동지정지대에 거주하는 주민은 만사세이상되는자는 해지방 경찰서에서 거주증명서(居住證明書)를 어든자에한하야 이주하거나 려행할수잇다하며 특수지대밧게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특수지에려행, 혹은 이주하고저하려면 거주지 경찰서의 려행허가증이 업스면 아니된다고한다 그뿐만아니라 긔차나비행긔로 특수지대를 통과할때도 허가증이 업스면 역이나 비행장외에 출입은 엄금하기로 되엿다고한다

討伐隊와共軍衝突

四時間激戰演出

新乫坡署對岸嚴戒中

【新乫坡支局電話】팔일오전칠시부터 장백현십사도구(長白縣十四道溝)에서(여서지점문명상공) 만군토벌대(滿軍討伐隊)와 공비 청안군(淸安軍) 사이에 네시간동안 대격전이 일어낫는데 이전투에서 청안군은 사자백여, 부상자이십명을 내엿다. 이전투에 주는 신갈파서에서는 대안경세를 중시하고 방비에위기가며 엄중경계하는중이다.

鑛山人夫慘死

【惠山】김화광산도(金化鑛山道)는 유명한 광산지대이니만큼 광산사고가 속출한다는 보통의 사실이지만 지난 십이일오후네시경에 일본광업주식회사(日本鑛業株式會社) 김화광산(金華鑛山) 제삼굴(第三窟)에서 이번일을하야 인부한명이 작업을하고 나오다가 다리를 실족하야 떠러지게 되여 그러케 되는데서 떠러저서 이러한것을 용납수당을 ...

南大西洋連絡 郵便機行方不明

【따-르】西阿濟네갈 八日發同盟 『잔·멜모-쓰』씨가 조종하는 남대서양련락(南大西洋連絡)기우인 『남십자성호』(南十字星號)는 승원사명을 태우고 팔일새벽에 다가-르를 출발하야 동다음 소식이 묘연하다 동긔는 도중에 바다에 추락되엿스므로 추측되는데 비행긔선은 즉시 구조수색에 착수하얏다 그리고 『멜모-쓰』비행사는 대서양련락비행에종사하기를 이번째이십오회이다

元山孤兒院에 同情金品遝至

【元山】원산고아원(元山孤兒院)에는 요지음 각처로부터 동정금품이 답지하야 동원에서는 크게 감격하고 잇다는바 ... 기증이잇섯다

金五十圓 金源歎出張所 金三十圓 安得深 金二十六圓五十錢 婦人生活改善會 金十三圓七十錢 金駿深 金十圓 間組元山出張所 金十圓이로하自轉車部 金八圓 金鍾煥 金七圓 春城券番 金五圓 金益燦 金五圓 小泉藤三郎 金三圓式 朴辰英 東盛商店 崔性一 三和貿易株式會社 李鍾軒 金國鐸 鶴見工作所 林永俊 金圭弘 共益運送部 杞仙局 金平鎬 徐相泰 金興工業社 金二圓式 金寶鳳 金炳翼 金鳳瑞 兪榮穆 姜顯景 中西船具店 姜福源 韓正弼 金儀鳳 金鍾均 李東暄 朴基洛 朴奉尙 金一圓式 萬成紙物店 鄭學龍 趙智元 吳德鎬 三南紙物商會 金相烈 李載成 李仁相 海東商會 朴興緖 朴伯敏 楊桂云 姜鵬彬 金剛旅館 千一南 石山德輔、金五十錢式 元斗熙 金泰華 金德萬 萬光酒店 스토부一座式 李周錫 裵千石 杉村支店 靴下二打 咸南工業社 素麵五封 姜顯貴 金利錫

吉州小學校落成

【吉州】길주읍내에잇는 동소학교는 대정십이년에 설립하야 이래 만흔 아동을 교양하야오든바 ...

上三峯變死事件

瀆職警官에各二年役言渡

八日淸津法院에서

【淸津】지난 이십륙일새벽에 돌연히 상삼봉 경찰관주재소(上三峰警察官駐在所)에서 발생한 피의자변사사건(被疑者變死事件)은 충동을 주엇거니와 문제의 피고인 전상삼봉경찰관주재소순사로 근무하든 오전항이(奧田恒一)(三二)와 김우길(金友吉)두명은 지난팔일 오전십일시반 청진지방법원제일호법정에서 호전판사(戶田)의주심과 리검사(李檢事)의 립회로 공판을 개하고 호전판사로부터 판결문을 랑독한후 동피고에게 시의죄명으로 각각징역이년을 언도하엿다

곱추딸죽인어미에 "執猶"의寬大處分

八日、京城覆審에서

친정부모가 홍수를만나 죽엇다는말을듯고 친정을 가려다가 남편이 가지못하게함을 분개하야 곱추병신인 네살먹은딸을 내ㅅ물에 집어던저죽게한 혐의로 살인및사체유기죄로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이년판결을밧고 불복공소하여온 강원도통천군흡곡면신창리(洪川面新昌里) 김귀련(金貴蓮)에 관한복심공판은 팔일경성복심법원에서 지전(池田)재판장주심 릉본(綾本)검사관여로 열렷는데 재판장은 그에게 정상을참작하야 이년징역에 집행유예삼년을 언도하야 내리엿다

市內『고무』業界

空前의大不景氣

販賣成績不良으로休業者續出

難局打開策으로統制强化企圖

원료의폭등(暴騰)과제품(製品)판매의불황(不況)으로 말미암은 시내『고무』공업계(工業界)의 부진상태(不振狀態)는 여전히심각화하야 그들은 그라개책(打開策)에 부심하고잇는 현상이나 여전히 영업성적은 악화(惡化)할뿐임으로 지난일신설정(新設町) 금강(金剛)고무공업소에서는 일주일간의 림시휴업을선언하고 작업을 정지하고잇다 그리고 이와가튼 사태는 다른 동업자에게도 파급될것갓다고한다 만일 무슨 자위적타개책(自衛的打開策)을강구하지안는때에는 사계에 커다란 영향이잇스리라고하야 그들은 지난 륙일 시내태평통(太平通)부민관(府民館)에 모히여서 재래로잇든 경기도(京畿道)『고무』업자조합(業者組合)을해산하고 새로운강력적조직체(强力的組織體)로서의 경기도동업조합(京畿道同業組合)을 조직하야 업계의 통제를 하기로되엿다고한다。하여간 고무공업계의전도는자못주목된다

英定期旅客機墜落

乘容十五名慘死?

【런던九日發同盟】런던항공회사『케·엘·엠』소속정기려객긔는 구일오전 암스테르담을 향하야 귀항하다가 크로이든비행장에 추락발화되여 그근처가옥까지 몃채가타버렷다 승객십오명은 전부참사한모양이다

麻浦唐人里間

明春까지는竣工

請負完了코不遠起工

새로경성부로 편입된 구역에 사는 경성부민의 요망의 하나인 마포(麻浦)당인정(唐人町)사이의 도로는 경성부에서 일전에 공사청부업자(工事請負業者)에게 맛기기로 결정하엿다 사업공사는 명년삼월까지이므로 명년사월부터는자동차나 우마차가 편리하게 통행하게될모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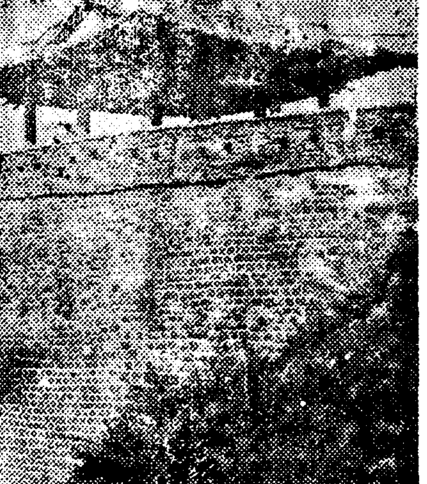
名勝乙密臺

根本的修築運動

工事費四萬餘圓計上

總督府와道當局間協議

【平壤】국보(國寶)로 일홈노픈련광정(練光亭)과 보통문(普通門)은 수축후은신축되여 구래를보전하게되엿스나 대동문(大同門)은 건축후 오백여성상에 씻기어 퇴락이심함으로 만여원공사비를 투입하여수리하기로결정된것은 기보한바잇서거니와 갑오년란리(甲午年亂離)와 갑자년(甲子年)란리를 겪근뢰사적대거를 을밀대(乙密臺)일명사허정(四虛亭)은 집옹이 문허지고 퇴락이 심하여 이여시일반의 관심처가 되여잇섯다 그래서 고적보존회에서는 집옹의 퇴락된장소를수리하려고 일천수백원의 경비를 계상한후조사를 한결과 의외에도 석벽(石壁)의 배가불러나서 오래지안어 문허질 절박한운명에 처해잇는것이 발견되여 집옹의수축은 커녕 근본로대인석벽부터 수리를 해야되게되엿다 이때문에 여긔에요하는 사만수천원의 경비를방금고려중이나 파출할도리가 업서서 도당국과총독부당국에 이경비에대한 선처를 요구하기로되엿다한다



◇도괘에직면한을밀대

"他地學校와는別個로 大邱兩校는存續

平壤問題에도나는絕對反對"

啓聖學校長 玄居善氏談

【大邱】장로회(長老會)계 남북각지 학교가 존폐지로에섯다함은 본보에루보한바이며 남장로회계경영인 전라남북도내 십칠개교는 이미 폐지키로 결정되엿고 북장로회에서도 동회계경영인 평양(平壤)대구(大邱)오개학교의 운명을 결정코저 지난오일 청주(淸州)에서 선교회중앙위원회(宣敎會中央委員會)가열렷다하야 동회의의 결의를 일반은 비상히 주목하며 왓든바 듯는바에 의하면 평양의 세학교는 일년내로 폐교키로 결정되엿고 대구계성(啓聖) 신명(信明)량교도 장차 가튼운명에 봉착되지나안흘가하야 우려하든게성, 신명량교 졸업생 재학생학부형등 천여관게자가 압흔에처엿다는 소식을듯고 긔자는 동교회중앙위원으로 대구지방회의 존폐문제의 진상을알고저 선교책임자요 개성학교 리사장인 현거선(玄居善)교장을 차저다

玄校長과一問一答

【問】지난오일 청주에서 열린 선교회중앙위원회에서 평양, 대구 오개학교의 존폐문제를 토의하엿다지요

현교장은 레의회의에 소불에 다소신분문제의 회장에 흥분된 어조로

【答】천만의 말슴입니다 나도 그회의에 출석햇습니다 마는 대구두학교는 문제되지 안햇습니다 중앙위원회에서 토의하자면 지방회(스테이숀회)에서 먼저제의하여야하는데 우리는제의도 하지안햇슬뿐아니라 나는 학교폐지반대론자로 평양문제에도 극력 폐지를 반대햇습니다 대구학교는 대구지방위원의 의견에 달렷는데 우리이외에 누가 우리학교폐지를 유의해요 신문의 오보는 퍽도 섭섭합니다

【問】금번문제가 선교회본부의 지령에 따라 되것이 아닌가요 만일그러타면 선생이 아무리존속을 주장하여도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요

元山上水道擴張工事

明年解氷期着工?

道와는諒解도成立

【元山】급수제한이라는 율로수의제한을 당하고잇는 원산부민의 큰긔대속에 오십오만원의상수도확장공사를 명춘부터는 반드시 실현코저 원산부에서는 그계획을 진행하고잇다 즉 상수도 확장공사의 정식인가는 정부의 명년도예산의 제국의회 통과후에야 하부하게될것인데 원산부에서는 그때까지 기다리고 잇다면 명년초춘부터 공사에 착수할수업스므로 지금 예산외계약(豫算外契約)인가를맛고저 옥전부윤(玉田府尹)은 총독부와절충코저 상경하얏든데 도당국과는 이미량해가 성립된모양이므로 독부에서도 인가하리라고 관측하다 따라서 청관되고 공사용재료도 지금부터 명춘해빙긔까지에는 전부준비하야다가 사월쯤에는 공사에착수할예정인듯하다

强盜犯逮捕도 거이時間問題

【平壤】삼중정(三中井)상공에서 뛰여나려 다라가 부려진괴도부내 차관리(次貫里)박성선(朴成善)은 발금도협의원에서 치료중으로 가해수사와 절과산뎌 이가튼 장물이 발견되엿스므로 취조한결과 실수건의 절취로만을 자백햇다 그러나 완치되기를 기다려 평양에 옮겨다가 계속취조를하기로되엿고 그밖게도 평양서에서는 유력한강도 용의자 이삼명을 체포취조중이어서 강도사건의진범도 머지안어 체포되리라고한다

長淵邑敎會에서 二重過歲徹廢

【長淵】이중과세로인한 생활상 막대한고통은 우리의 적지아니한 큰문제로서 재래의 인습에 억매여 오든터인데 장연읍교회에서는 동교회당국 제직회에서 음력을 철폐하고 명년정초부터 일체양력을 직히기로 결정한후 교회애공포후 완전실시하기로하엿다는데 일반교우들은 생활상고통을 덜수잇는기쁨으로 리함을 일반에게 력설하며 대히양력정초를 명절로 직힐터이라하며 세배를 철폐코저 신년축하식을 당일에성대히거행할 터이라한다

심프슨夫人「카메라」아페

【칸느八日發同盟】「심프슨」부인은 팔일오전「루-비에」장(莊)에서「론돈」교외「포-트벨베데아」리궁(離宮)에 국제전화를걸어「에드워-드」팔세와 무엇인가 협의한듯하며 오후에 이르러 처음으로 밧게나타나 신문사진반에게 웃는얼굴을 보엿다 영국과미국사진반의 두사람만이 인외 촬영을 마친다음 『푸로무마-』경은다음과가티말하엿다 "너무괴롭게 굴지마시요 괴롭게만 굴지안흐면 크리쓰마쓰까지는 여기체재할지도 모름니다 부인은매우건강하며 병이라고한것은 전연거짓말이다"

臨床治療報告

참으로 治淋界의 革命藥이다

醫學博士 江口勝四郎

모든內服藥이 한등의治淋的効果가 업고다만治療補助劑로서만 사용되고 잇는오늘날에 오로지强力한殺菌力을가진局所療法이라야만 根治식힐수잇다는것은 學理上明白케증명되엇섯스나 臨床治療에쓸藥劑가不充分하야 苦心中 우리東洋에서 世界的治淋劑가出現되야 그것을實驗해본즉 卓越한理論學說에適合할뿐만아니라 的確한効力에는 경탄을마지안는바입니다

一、卄年以上이나되는慢性淋疾患者를 젠고-루로 治療한結果 根治되야 비로소 처아들을낫케되는希有의深毒性과殺菌作用을確證케되며

一、强力한殺菌力과消炎力의實證은 急性淋疾患者百六十餘名의實驗한結果不過四日만에 根治된분이九割二分이다

一、淋菌蛋白과 結合되지안코 强力한殺菌力이 敏速함은 三年乃至五年된慢性患者二百四十七名에實驗한結果 三週日以內에 淋菌이消失되고 이中떨어지는분이 八割七分 四週日에 一割二分根治되다

一、治療完治後 絶對再發되지안음은 그後百二十餘名을 五個年을두고 每年診察한結果 大部分으로부터 조금도再發치안는證明을엇게되엿다 以上十個月間實驗으로보아 現今의治淋界에잇서서는 이以上가는 根治藥이업슴을 確言하는바입니다

뚜렷한、살은鬪病實例

치위에再發된것을 약두瓶으로根治

張敬淳

……昨年에春川出張갓슬때 걸닌것을 內服藥을六個月두고 먹엇드니좀낫는듯하야 그대로두엇든것이 치운바람이부러오니가 갑작이 再發되야 신열이나고압퍼서 苦生하든中 貴社靈藥젠고-루一號와二號의中瓶을계속하엿드니 神奇하게도 根治되어습니다 이곳에잇는 病院에가서 檢尿를한즉 조곰도 淋絲가업다고하니다……(後略)

六年된痼疾이完快

朴 ? 釗

이러기쁠이 또어데잇겟습닛가 이곳同病者에 틈잇는대로宣傳하겟습니다

(前略)溫泉、침、內服藥을 그럿케도 만이 썻든것이 조금낫지안코 신음하든것이 어제갓습니다……貴社藥을쓰기始作한지二日만에 어데그럿케 고름이숨어잇든지 놀날만치쏘다저나오드니……이제는 조곰도 뿌리가업습니다……(後略)

그러므로 內服藥을머울때는 좀낫는듯하다가 藥만끈치면 또다시 再發되는것은 임이 여러분께서 經驗하신事實일것이며 現在의專門家治療에서도 內服藥은 다만 오줌을잘나오게하는利尿劑로 쓰는것이니 …

림질은急性症때에 곳칠수록 속히낫는다

아무리고질이된慢性症이라도한 두번治療에 急性症勢로변하야 곳낫는醫師專門淋疾藥으로자택에서도完全히根治되는신발명약

東京田谷泌尿科病院院長 醫學博士 田谷利男

종래의 림질의과治療法으로는 엇재서 急性症때에곳처도 낫지를안코 만성림질이되고 맙엇느냐하면 여러분께서 適當한治療法과治療藥을 선택치못한까닭에 그럿케病이오래 끌게되는것입니다 즉 수만흔例로는 림질치료에 內服藥(가르약물약, 환약, 가루약, 膠囊등)을 連服하시여서 病勢를오히려 重態으로만들어가지고 『림질은낫지안는病이라』고 한탄하시나 그것은 內服藥에는 尿道속에잇는淋菌을 죽일만한殺菌力이업는까닭에 그런것이지 治療法만正當하면 短時日에根治되는病입니다

大體로 淋疾은『남녀국부속에 병균이들어가서 생기는病』인만큼 그곳에서 활동하고잇는병균만 도려빼내면 낫는것인데도不拘하고 胃腸을경유하야 겨우 오줌속에 섞겨나오는약기운이 그곳에作用하는 內服藥으로는 完全한治療가 될리치가잇겟습니까

그런고로 世界醫學界에서는 淋疾治療에 반듯이 便通을要케하는데에 使用할다 합니다

그런고로 世界醫學界에서는 强力한殺菌力을가진銀劑로 局所療法을하여야낫는다는것이 共通된定說이엇스나 그局所銀劑藥中 一長一短의폐단이잇서各國에서 硏究를거듭하든中우리東洋에서 大發明을하게되야 世界治淋界에大革命을 일으키게되엿습니다 즉前東京吉原病院長佐藤榮先生이 在任十數年間新學說硏究와數萬名의 花柳病者를診察治療하시는中 百發百中의淋疾治藥을발명하시여서 治淋界에 一大貢獻을하신것입니다 즉 약한방울로 단二分間에治療效果가낫타나는 『림질근치약『부라온銀젠고-루』는 醫師專門藥일뿐만아니라 民間에서도 病院治療와 똑가튼治療가 간편하게되는藥으로변하여서 아무리고질의림질도 한두번치료에 急性症勢로변하여가지고 短時日에根治되어버립니다

내病院에서도 臨床治療나 外來患者의自宅治療에使用한바 驚歎할만한 神効를確證하엿사오니淋疾을 속히根治하실여러분은 조곰도 주저마시고 젠고-루로치료하시사 根治식혀주십시요

약 한방울로 단 二分間에 치료효과가 나타나는 부라온銀젠고-루

젠고-루만이 가질수잇는 殺菌力과深達、消炎作用으로尿道表面은물론이요 조직심부에속속드리 뿌리백혀잇는림균을 모조리죽이고 고름을삭게하며 흠집을양물게하고 아품이곳개이며 단시일안에 오즘이말거지며 약기운은 전신에퍼저서모든 증세를곳처주어서 단시일안에 根治되는약입니다

使用法이간편하고 자택에서도 조금도 위험의염려업시 남몰래 치료할수잇는약이오니 놀래再發하야 苦痛바드시는분, 속타는藥을 다써보아도 아직도낫지안코 고름이끼는분, 급성림질로 아품에못이여 허둥지둥하시는분은 조곰도 주저마시고 젠고-루로治療하시사 根治의깃븜을어더주십시요

本劑에는 약가는同一하나 一號(급성용) 二號(만성용) 三號(부인용)의 구별이 잇사오나 만성중이분도 먼저一號를쓰시고 二號를계속하시면 더욱효과하오니 병세를조선국문으로 자세히쓰시고

東京市芝區通新町十一

總代理店 合名會社河原商店 (振替東京三五〇一九番)

으로주문하시면 朝鮮日報讀者에限하야 송료를부담하고 대금인환으로도 송약해드립니다

日東製藥合名會社製品

定價 一圓九十錢 二圓八十錢 三圓八十錢 五圓 (?瓶入十七日分) (?瓶入三十五日分) 七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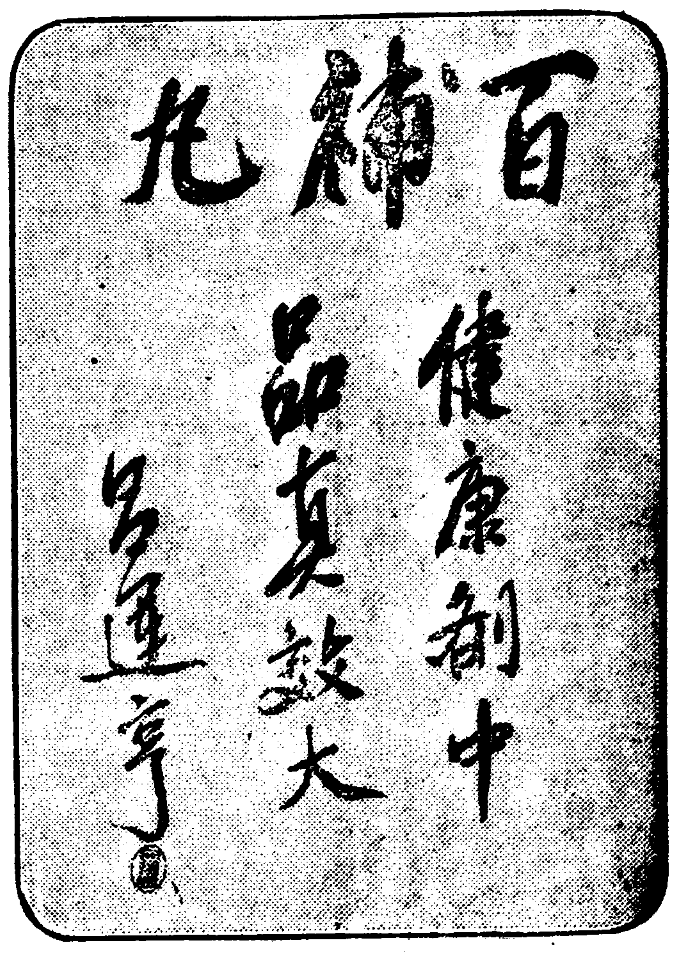
各처藥房에 販賣함

朝鮮各地特約販賣總代理店

聖賢君子·勸善懲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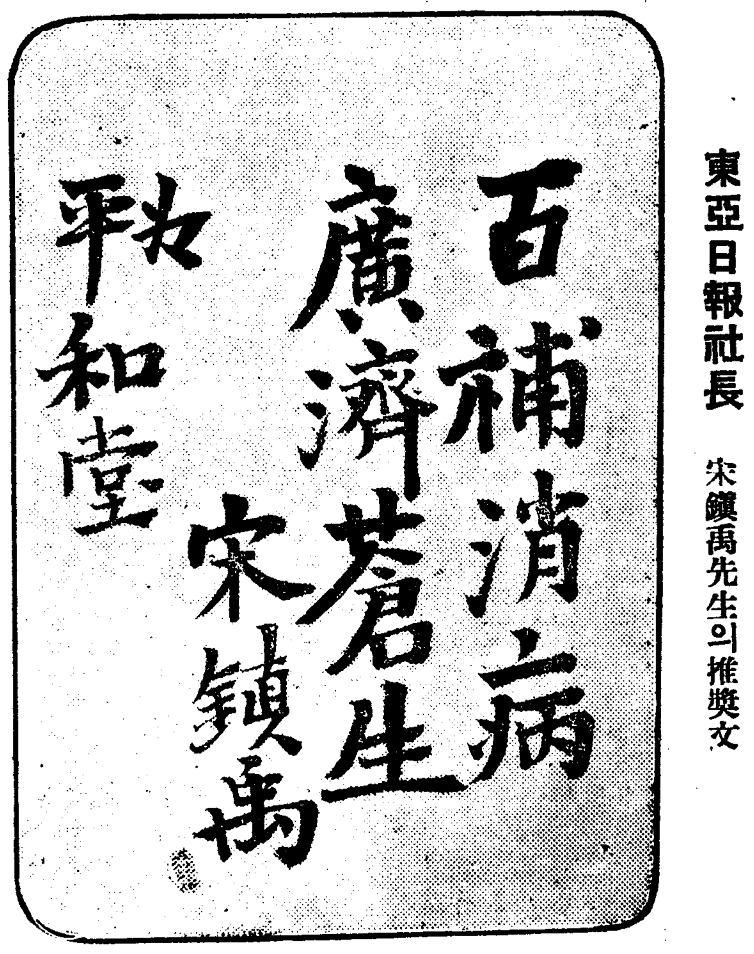
●自古로聖賢君子는 善한것이면 勸하고
●惡한것이면 미워합니다
●現代의聖賢各界名士께서 百補丸을 推奬하여 주신것은 勸善懲惡의意이오며
●平和堂의 無上한榮光이올시다

中央日報社長 呂運亨先生의推奬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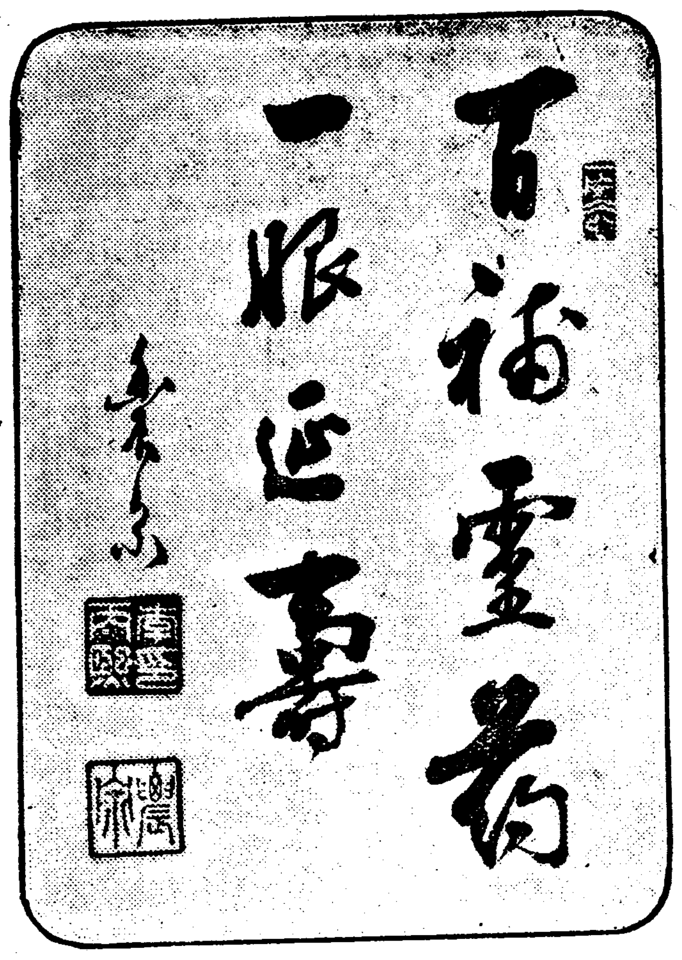


前外務協判 體育會長 尹致昊博士께서百補丸을稱讚하신推奬文

東亞日報社長 宋鎭禹先生의推奬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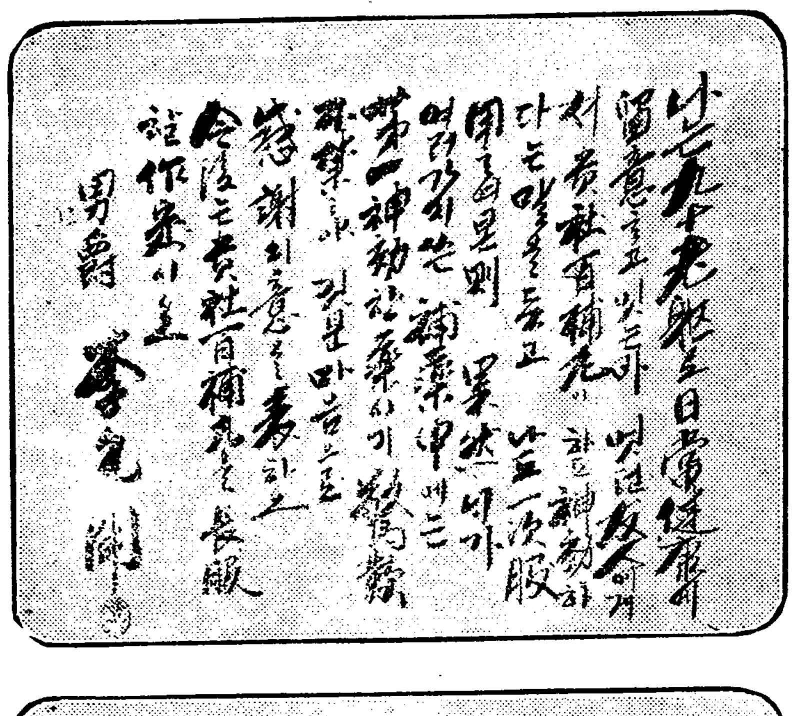


李王職 李丙燾先生께서百補丸을稱讚하신推奬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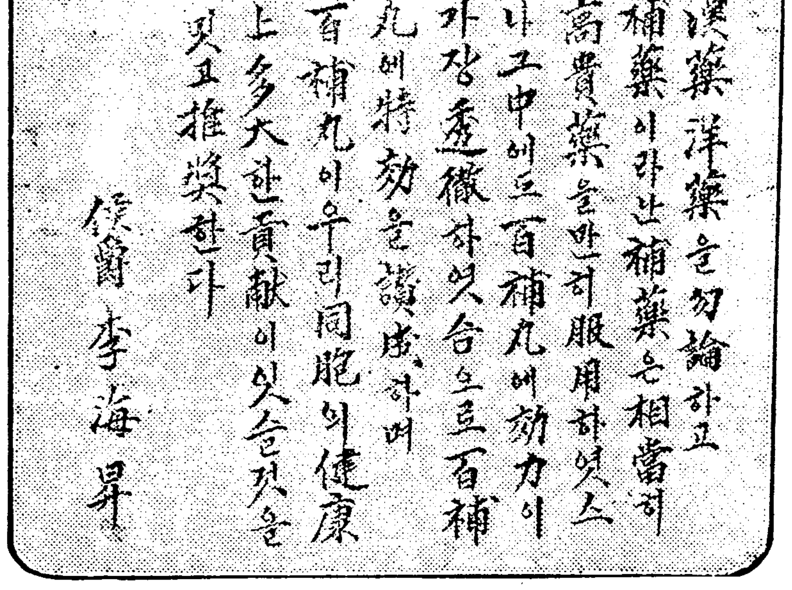


●貴族·兩班 各界名士께옵서 惶悚하옵시게도 百補丸의效力을 認識하여주시고
●百補丸을爲하야 同胞의 健康을爲하야、이가치 貴하신글을 주시니 鴻恩을 報答할 道理가 업삽고
●오쟉 藥品精製에 더욱注意하야、글을주신분들에 面目이 빗나도록 勉勵하기를 自誓하옵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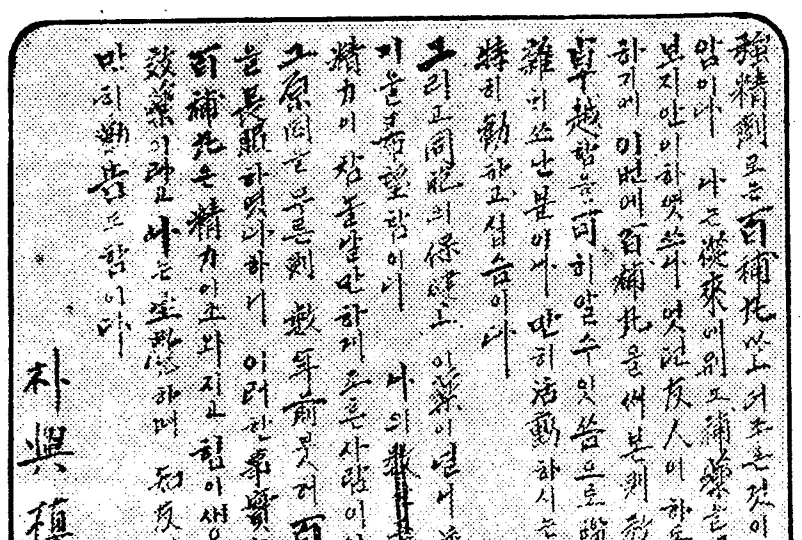
前宮內大臣 男爵 李允用閣下의推奬文



侯爵 李海昇閣下의推奬文



和信社長 朴興植先生의推奬文



●委託販賣店募集中 地方有力醫師醫生 有力藥店에限함
●特大型カレンタ百部式 責任所店名印刷無料進呈

世上은 조흔 世上이다

一、昔日에난 特別한貴族兩班만이 쓰던 秘方補藥인데
一、現代에난、누구던지 自由로 쓸수잇게 되엿다

男女老少
一、老年이쓰면 更少年이되고
二、壯年이쓰면 陽氣가大發하고
三、婦人이쓰면 煖宮胞胎하고
四、靑少年이쓰면 精神이聰明함

藥價 一劑 特價 拾圓 / 重用 貳拾圓

無料進呈
三劑以上共同注文周旋하시면 周旋人께一劑無料進呈

注文送金은 左記三處中便宜한口座에 하시요
一、振替 京城 五番
二、朝鮮銀行本店內 平和堂
三、商業銀行本店內 平和堂

神人道師 葛玄眞人의秘方藥

補陰·補陽·補腎·補肺·補心·補腦·補脾·補胃·補全身百補·不老更少年仙藥

百補丸

根本的回春壯陽强精强筋强骨倍力·平生無病健康長壽劑

萬金不換의此事實

보시요! 朝鮮의貴族、兩班、大臣을비롯하야 各界朝野名士의 最大賞讚 愛用 推奬을 밧는補藥은 事實 百補丸뿐임니다

●돈잇고 地位잇는 貴族名士等의 推奬文과 賞讚은 絶對로 千金萬金으로 살수업는것이事實임니다
●돈보다도 自身의 名譽와地位가 그분들의 生命이며 무엇보다 第一尊重하고 貴한것임니다
이러한분들이 一個 藥會社의 營利를爲하야 私情과 돈의 팔니여 特效가 無하고 高名치안은藥을 거짓賞讚과 推奬文을 쓸理는 絶對萬無함니다
●오쟉 百補丸의 卓越한 效力이 實로 國民保健上에 必要하다고 認定되엿기때문에이러케 貴族 名士諸氏께서 이가티 最大한 賞讚과 最大한 推奬文을 眞實한 마음으로 써주시게 된것임니다
●이것이 補藥界의 大王으로 君臨한 最大의效力을가진 百補丸이아니면 엇을수업는 最大의榮光입니다
●그럼으로 百補丸의 效力은 只今다시 區區한說明을 할必要가업사오니 廣告보다 實際事實을밋고쓰시요
●世上에는 別別 虛無誇大한 廣告도 다 만흐나 事實百補丸과가치 效力조흔藥은 다시 업습니다

●藥이면다藥이아니다
藥다운藥을쓰시요
●第一이라고만하면다第一이안임니다

참말第一인지는
1、事實로 證明하고
2、科學的으로證明하고
3、先服者가證明하여야
참말第一일것입니다

三大證明

事實證明
百補丸은 古代中國道師葛玄眞人의 千古秘方인것이 事實이요 現在平和堂을 通하야 千萬사람이 累試累驗하야 그效力을 賞讚하는것이 事實이요、朝鮮에서 엇던藥보다 第一만히 歡迎밧고 第一만히 팔니는것이 事實임니다。이갓흔 大歡迎이갓흔 大賣行은 朝鮮에서前例업는事實이며 百補丸이 補藥中第一効力이 特大하다는것을 證明하는事實임니다
●京城四大郵便局이 이事實을 統計數字로證明함니다、遞信關係人事는 郵便局에 아러보시요 數字事實이 證明함니다

科學的證明
百補丸은高貴漢方補材二十種이理想的으로 配合되고古代秘方藥인바身體各部의根源을補하는同時에陽氣不足、神經衰弱、胃腸乘弱等을비롯하야身體各部의虛弱症狀을治療하는二重作用이有함니다百補丸成分中에는가장エネルギー量과カロリ量이第一만코ホルモン成分과造血成分이第一만흠으로全身의勝氣陽氣가疾風中의火焰가티이러남니다

先服者證明
百補丸을服中한사람으로그効力을感歎지안는사람이업슴니다京鄕을勿論하고各界有志紳士各界名士諸氏가百補丸을服用하여보고그卓越한効力에말로書面으로推奬文을各其親知友人에게傳하게되는분이多大數임니다 이가티 感謝狀、推奬文、先服者의 말을밋는 注文狀이 雲風가티 踏至하니 百補丸의効力은 二重三重으로證明되고잇슴니다 百補丸을 쓰고 그効力을自己만알지말고他人에게 傳하는것은 勸善懲惡原則에依한積善이되는것이오니 조흐면 조타고 말슴하여주시요

廣告보다効力
百補丸이 이러케 만히팔니고 先服者가 効力을證明하는것은 廣告가큰까닭이아니요 藥効가 큰까닭임니다。只今 누가 무슨廣告를 암만크게낸다하드라도、數萬服藥家가 證明하는 百補丸의 藥効보다 勝할수는 絶對업슴니다 廣告보다 藥効를밋고쓰시요

陽氣不足、氣血不足은長壽못할前兆

●이런분은쓰시요●
●氣血이俱虛하야 貧血이되고 形容이蒼白한사람
●性慾이줄고 活氣가업고 手足과 下초가 恒常濕冷한사람
●肺가 不足하고 허리가 압흐고 머리가 묵업고 精神이흐리고 神經이 衰弱한데 特效함
●消化不良 체중 속병가튼것은 어느때업서젓는지 알지도못하게 업서집니다
●筋骨이 튼튼하여지고 氣血이 旺盛하여지고 힘이생기고 順借力이됨니다
●ホルモン不足으로因한腦性、神經衰弱人은더욱速効함니다
●눈이발가지고 皮부가조와지고 血色이조와집니다
●全身五臟六腑를 다잘補하오니 참말 完全한 陰陽雙補되는快感은 百補丸服用人이라야만 알것임니다
◉過飮過色人에게는 特別速効합니다

販賣所
一、本社 直賣部
二、朝鮮總督府商工奬勵館
三、全朝鮮十三道廳 商工奬勵館及商品陳列所
四、全朝鮮和信連鎖店

平和堂株式會社藥品部

京城府堅志町(五) (前中央日報社跡) 振替五番●電話光六三二番

벌거케 내논 다리
어버이 마음엔 그여 애처롭다
얼골이나 손도 내노치안습니까 모도다 습관에 달린일

날이 벗적 치워 질사록 애기네들을 거느리신 어머님의 애릇한 걱정이 적지 안습니다。저것들이 치웁지나 안 할까 또 저것들이 감긔나 안들까 그러한 걱정을합니다。그런데 요사이 도회지로 오면 애기네들은 대개 조선옷보담도 양복을 만히들 입히지 안습니까? 양복에는 아래ㅅ바지가 짤러서 정갱이가 벌거케 나오는데 그러고도 과연 감긔가 들지 안켓습니까? 편리하며로 양복을 입히시면서도 그 것이 한 걱정입니다。다심하신 어머니는 일부러 긴 바지를 맨들어 입히시거나 하다 못 하야 솜옷이라도 지것을 사서 입히시는 수도 잇습니다。

물론 이때까지 정갱이고 무릅이고 흉 가리어 오다가 갑작히 드러내여 놋는다면 감긔가 들다뿐입니까

「그러치만은 얼골이나 손도 그대로 내노코 지내는데 정갱이인들 내노아 버릇한다고 아니것습니까?」그런 것을 안본는 안악네들은 안다깝고 애처롭게 생각도 되시겟지만은 심상버릇하기에 달리엇지 아모러치도 안습니다。만일 애기네를 좀 튼튼하게 또 좀 건강하게 기르기위하야 단련을 시키시려고 할지면차라리 그러케 이피어 두는것이 조습니다。단지 내어놋는것이 무릅따아래까지라야지 그이상은 아조 재미가 업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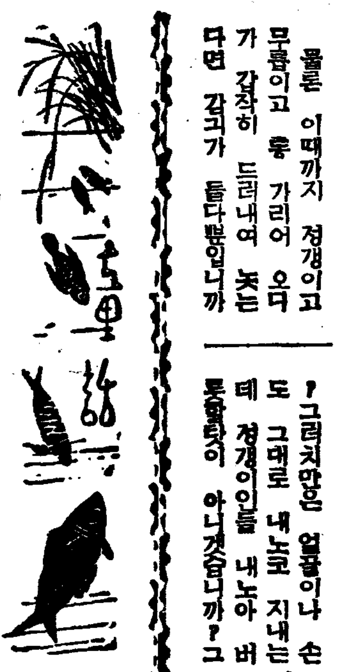
또 아래ㅅ두리에 속옷은 무릅한것으로 틈틈 껴입피어 두어야지 그러치 안해서는 역시 재미업습니다。

×

녀학교에서 짤다란「스카ㅡ트」들을 교복으로 습뒤복하 부인과(婦人科)의 병이 처셔느리다고하지만은그것은놀롭하니 멘시엇게 하노라고 알픽한 속옷을입은까닭이 요짤은「스카ㅡ트」를입은까닭이 아닙니다。손이나 정강이가튼데는 좀 차도 큰상관이업스되 내장이 틀어잇는 배가 차서는 큰일입니다。무릅우가 차게 되면 찬피가 골빈(骨盤)으로까지 흘러 나려와서 아래ㅅ배에 조치못한 영향을 끼치게됩니다。그래서 부인과의 병이 만히지는것은 물론입니다。그러니까 좀 보기는싫러라도 궁둥이께를 든든히 입어두어야만 한니다。조그만 모냥에 구애해서 병을 살필요는 조곰도 업지안을까고한니다。

×

좌우간 정갱이를 내노코 안내놋는것은 습관에 달렷스니 내노아도 고만, 안내노아도 고만, 아모래도 무방합니다。몸을 단련하는편으로보아서 내놋는것이 조키는하되 그러타고 안 노아서 별해가 잇는것은 결코 아닙니다。그러나 내노타가 안내노타가 하는것이 해롭습니다。오늘은 추우니까 긴바지를・입히고내일은 좀 푹하다고 짤은바지를 이피어 왓다갓다 하면 그 애기는 감기에 걸리기가 첩경쉽습니다。어느편이나 일정하게 정해 노코 하십시요。그래서 어느편으로든지 버릇이 되도록 맨드시요



왕자와거지 ㉑
마ㅡ크・토웬 作 崔秉和 譯

국왕은 녀자의손에서 빠져도망칠랴고 애를 썻스나 녀자는한사코 놋치안햇습니다。휴고ㅡ는 나무뒤 에서 이광경을보고는 자기의계교가 드러마저서 국왕은 순사에게 붓들리여 갈줄알고 그자리를 살작도망해버렷습니다。

「순사나리。눈깜이 머려니、네보통이를 훔친사람은 내가아니다。」하고 변명을하엿스나 물론은사람들은 가진욕을 퍼부엇습니다。그리고 대장쟁이가 뛰여나오든니「도독녀석을 혼을내여주어야겟다」하드니 손을번쩍 들엇습니다。그때 번개불가티 공중에서 긴칼이 번적어리드니 대장쟁이 팔둑을 칼등으로 내리첫습니다。그와동시에 칼가진사람이 나타나드니 쾌활한음성으로말하엿습니다。

「여러분! 저애를 따리거나 욕을뵈는것은 좀 조용하십시다。이것은 여러분의마음대로 할일이 아니라 법률에빗초어서처분할문제입니다。부인ㅡ그애를 놔주시요。」

대장쟁이는 그키큰군인을 한번치어다보고나서는 팔을 주물르면서 뒤로물러서버렷습니다。여러사람들은 웬건방진놈이 뛰여나왓느냐 하는듯이 군인의얼골을 처여다볼뿐으로 누구한사람 입을버리는사람은 업섯습니다 국왕은 급히 그군인에게로 가서

「퍽 느젓구나。그러나맛침잘왓다。마일스・헨돈、이놈들을 처치하여라。」

二三、무서운사형선고

헨돈은 웃음이터저나오는것을 억지로참으면서 왕의 귀에대고 속삭엿습니다。

「조용하게시십시요。떠드러서는안됩니다。모든것을 저에게 맥기십시요。」

이때 순사는 한사람이왓스므로 여러사람은 것볼비켯습니다。순사는 국왕의엇개를 잡엇습니다。마일스는

「손을노십시요。이소년은 말만하야도 가자는곳까지는 갈것입니다。그것은 제가보증하겟습니다」하고 말하얏습니다。순사는 보통이를든 녀자와 헨돈과 국왕을데불고 갓습니다。

재판소법정(法廷)으로 끌려나왓슬때 녀자는 그곳에잇는 소년이 훔친것이 틀림업다고 말하얏습니다。이말이 틀리다는 증거를듣지 안흐면 국왕은 죄를뒤집어쓰게됩니다。

재판관은 보통이를 풀르게하엿습니다。그속에서는 살이통통이찐 조고만돼지가나왓습니다。그물건은 소년이 훔칠만한물건이므로 될수잇는대로 죄에얼커들지안토록 힘쓰고잇든재판관도 퍽 난처한얼굴을하엿습니다。헨돈은 걱정이어떠케되나 하고 몹시 염려하엿습니다。국왕만은 무슨일인지 그동안을 지못하므로 태연스럽게얼골을하고잇섯습니다。

재판관은 잠간동안잣자코 잇다가 녀자를바라보고 무렷습니다。

「이물건갑은얼마나되느냐?」

녀자는 절을하고나서

「네、삼실링・팔펜쓰 입니다 저는 한푼도 외누리를 하지안습니다。똑바로 말습드린것입니다。」재판관은 순사를보고 헌으로 군호를하면서

「방청인(재판하는것을 듯는사람)을 바그로 내보내고문을다더라。」하고 명령을하엿습니다。순사는 여러사람을 쫓차냇스므로 법정안에는 판리두사람과 녀자와국왕과 마일스・헨돈이남어잇섯습니다。헨돈은 어떠케될까하고 얼굴이 푸르락 누르락해지며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재판관은 두번재녀자를 바라보드니몹시 소년을동정하는듯한 얼골로

「이애는 필경 배가고파서 참을수가업섯나보다。이아이의 얼굴을바라。배가굶시고프지안흐면 나쁜짓을 할소년가티 안보이지안느냐。녀도잘알겟지 십삼펜쓰 이상되는 물건을 훔친자에게는 사형(죽이는것)에 처한다는것을……」국왕은 사형에처한다는말을듯고 펄펄뛸듯이 놀낫지만 겨우 마음을진정식히고다음 잣자코잇섯습니다。

그러나 녀자는 그러치안햇습니다。사형이란말을 듯고 무서워서 부들부들 떨고잇섯습니다。이것을보니 마음이착한녀자이엇습니다。녀자는 큰소리로말하엿습니다。

「어구、큰일날말슴을 하십니다。저는 결코 이불상한아이를 죽이고십지는안습니다。재판관님! 제발살려주시십요。어떠케햇스면 조켓습니까?」

재판관은 그말을엇엇다는듯이

「지금말한 돼지갑슨 아직 쓰지안헛스니깐 다시 곳처서 말할수잇다」하고 대답하엿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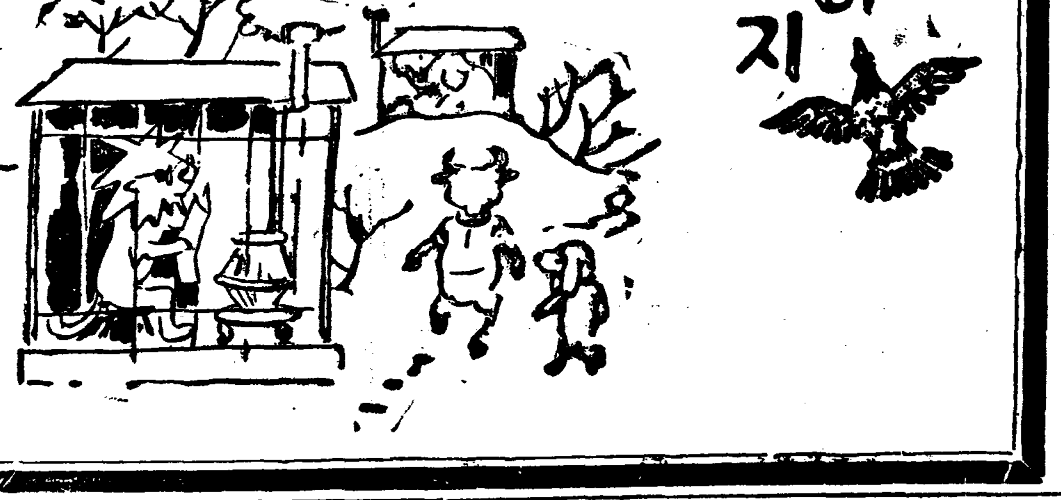
「그러면 이돼지갑슨 팔펜쓰밧게안됩니다。아! 참고맙습니다。큰일날번 하엿습니다」마일스・헨돈은 이말을 듯고서는 너무나 기뻐서엽채뭇고하고 국왕을 끼여안헛습니다。녀자도 다행하게 생각하고 인사를 하고나서 돼지보통이를 가지고 도라갓습니다。

하마트면 사형에처할번한 국왕은 인정만흔재판관과마음착한녀자의 덕택으로 무사히 노여나오게되엿습니다 헨돈이미친사람가티 기뻐할것도 무리가안이엿습니다。

그러나 노여나오든두사람은 장차어되로갈것이겟습니까!

「겨울」

아무리추어도
개는 맨발을버슷
채로다닙니다。
소와말은 솜옷을
입어본일이 업대지。
동물원에 잇는 코키릐
와 사자는 요새더 운
방에서 지내느라고 날
찬줄도 모르나보다。
(금수사랑 원효실)



영양분만코、깨끗한 식혜담그는법
차등속은 문제도안된다
(1) 洪善杓

식혜라는것은 청심보비위하는 일종의식품입니다 과자대용、접용으로 조선에는 차라는것을대용하는계상 정월이나 그외다른때라도 손님에게 만히 대접하여왓든것인대를 외관상으로나 그맑고 담백한맛은 청국의차나 일본의일등되는차라도 과연우리 식혜만 못할줄로생각합니다。그뿐아니라 다른나라차보다도 우리신체에 유익한점로 몹시 육식을만히먹은뒤에 배가 몹시 불러 창ㅡ한때먹으면 배부른것이 내려안저 편안하고 밥먹은뒤에 먹으면 밥이 잘소화되고 고로 불면증이 잇는사람도 더 식혜를 늘먹으면 잠이 잘오는 욕조흐며 식혜를 늘먹는사람은 체증이 업서지고 혈액을 잘순환시키는 작용이 잇는고로 항상 유쾌한 긔분이 잇고 그외 편미로 보더라도 일종의 미술적 음식으로 보며 희고 맑은 아름다운중에도 그맛이 청아하면서도 심히 떨고 맛잇는 음식입니다。

배곱흔때 요육으로도 먹것고 신시적으로 차대용으로 먹을 만할뿐아니라 술먹은 사람이 한 그릇마시면 술이 깨이고 정신이 쇄신나서 맑은 정신으로 회복이되며 어떤아이들에게도 떼어먹 록에 유익하고 또 대개 잘들먹으며 술、담배아니먹는사람이라도 요새가튼 추운날 뜻뜻한 더운방에 안젓다가 한대 접 먹으면 그만큼 유쾌할때가 업습니다。또 손님에게 대접하기에는 요사히 흔히 쓰는 번치못한 사과나 차등속보다는 얼마나 나은물건이 될줄로생각합니다 그뿐아니라 그간시라는것이 한손님대접하려면 불과십전이내가 될신못되는동시에 이거야말로 남에게자랑할만한조선의고유한명물중에도 참으로 충찬비를 음식인데도불편하고 보통때에는 별로 만들지아니하다가 정월이 되면 다례에쓰기위하야 집집에서 대개맨드러먹거는하오나 제법 맛잇게해서먹는집이 만치못하것것기로 그만드는법을 소개하고자하는것이올시다。

가을에 쉽게 말우어서 겨울을지내다가 이듬해봄에 자라서 다의거목보리(大麥)拏 가을보리를사다가 싹정이는 골나버리고 통통한놈만 골라서가량 무되를 가지고물에 서너번켜하거씻슨후에다시 정한물에담거 싹이 애굿애굿나기시작하기는 물이 잘빠지는 시루가튼그릇에 심상사아두되 온도에 상시일정한 당도되는 그ㅡ담어놋 불피독거가다섯지 가량 되게 담어 두고 그우으로는 베보재기가튼 홑것으로 두서너겹 폭에추기여 떠두엇다가 다시 끄내여 맑은 찬물에 또다시 서너번 정하게 씻서 전과가티 해서두엇다가십 사일지내면보리들은 뿌리가 나고 우으로는 싹이져라게 서록 합니다。

반지대신에「라디오」

반지를끼고 단이다는것은 벌서시체에 뒤떠러진것이라 하야요지음 미국서는 반지대신에종

밤새가가렵다

낫만흥한 적은「라디오」가 류행하고잇습니다 조곰붓고심호면귀가에 손을 가져다대이면「라디오」곳집조사기는 소리로 음악과 강연을들려준답니다

問 사오년전부터 밤새가 혜지고 가렵습니다 (江景耳生)

答 한포(汗疱)입니다 밤새에 물썻고 공거가 잘손통되도록 해야합니다 초기에는 포ㅡ十%사리칠산、알콜녹요도정기를 바릅니다。그러나 당신은 입이 혀지고 헌기도한 모양이니 봉산난고거튼 고약으로 그것을곳친후에 그런약을발르십시요 그리고 ×광선을 조이는것이 매우조습니다。큰병원에게서 ×광선을 조여보십시요 또一%뢰졸수(병원에서 쓰는숨약)로 밤사어에 정진울하는것도 조습니다

(大學病院皮膚泌尿科鄭根陽)

특발성탈전

問 삼십생세의 남자이온데요 벌경부터 날이 차면 다리가푸룽일로 수시고 아프며 먼걸을 것지못합니다 다리를 떠울게하면 아픈것이 좀나으나 차게하면 떠 섬하야집니다 무슨병일까요 가정치료법을 가르켜주서요 (金石生)

答 날이 차면 아프기시작하며 보행하지못하는점으로 생각하면 특별성탈저인것갓습니다이병은 중년남자 특히로동자에게 만히 생기는병이며 병초긔에는 당신이 말슴한증상과다든나 떠경해하면 발가락끗이 썩고 코등이 대단하야전반에 잡을자지 못하게됩니다 가정료법은 업고 전문의의 치료를받어야될것슴니다。(大學病院松井外科李炫)

무사마구

問 좌우손등에 무사마구가만 어 보기실습니다 (白川生)

答 만일 무사마구저 흔적이 않어고 적당하여도 효서「쿠어로・크민」이라는약을 여러번에서서 배앓아 ... 오면 나올넌지도 모르겟습니다 명의로부터면 병원에게서 약오다 ...

이건참명포수!

미국「칼리포니아」주에 사는 「하몰드・카ㅡ롤」이라는사람은 대단히 참황스럽고 조금한성질을 가진사람입니다 갈곳마다 모든일에 실패를하는데 요지음 산양하려가서도 실패를 햇답니다 그실패라는것도 여간실패가안이라 산양도구를 당나귀에실고산에가서 당나귀는 나무에 매여노코 산양도구만 내루어가지고 사슴을 조처단이다가 그만자괴가 물고간당나귀를 사슴으로잘못알고 총을쏘아서 잡아버리엿답니다

(大學病院皮膚科推獎品)

년말고객흡수책

최근 미국뉴ㅡ욕의 어느큰백화점은 년말경품부 대매출을하는데 경품의재비에 뛰ㅡ한사람은 서서(瑞西)의「산모리쓰」국제스키장에 초대하기로 되여잇습니다 물건은 물건대로사고 재비에뽑히기만하면 구라파구경을 도한입안내고 할수잇게 되엿는데여기에뽑힌 손님을태우기위하야불란서기선 「페리ㅡ호」를 예약해두엇답니다

이기선에는 특별히 해상스키ㅡ장을만들고 기타겨울 운동에 필요한 시설을 가추어서 손님들에게 바다우에서 운동을하도록 되여잇습니다 이기선은례년정월에 뉴ㅡ욕을 출범하야불란서 류 아롬항구에입하고 거긔서는 기차로 서서를향하야몃칠잇다음에 다시손님을 태워가지고 뉴ㅡ욕으로 도라오도록되여잇습니다

유ㅡ모어小說

(元) 金熊超 作・畫

晩學一年生(8)

어떠케해서 섯녀씨를 상당한 입월리ㅡ머성으로 맨드려노코나서 몽배군은 변소에갈일이 잇는드시 얼른휴상으로부터 나려왓습니다 떠오래 노다거리다가는 허위가 풋로림우러도 잇슬뻔더려 가풀하는데도 지장이잇슬듯했는것입니다。그래서 누구보다도 먼저과장에게 집안에급한자가잇다는것을 말하고 그외손울거처 회계에서 일금삼십원을 빗어뎟습니다。말이쉬어 삼십원이지 이런한거금을 일족이가볼해본일도 업슬뻔터러 이번에안해의 입학을위하야 최선을 다하는 성의에서나온것이니까 잇는사람의 삼백원맛자비가 되는셈입니다。퇴근시간이 도라오자 몽배군은 과장에게 감사하다는 뜻으로 인사를까드시하고 먼저 살작빠저나와 집으로 도라왓습니다。

「어서어서」

대문턱에 드려서기가 무섭게 부산을 떠럿습니다。

「뭘어서 어서하구 야단이시우 저녁은 아직 시작두안햇는데」

섯녀씨는 우룸가에안저 어린애똥기저귀를 주무르면서 태연스럽게 대답햇습니다。

「글세어서어서」

「가만히게시우 이거마저 빠러노쿠……」

「뇌장 부리지말구 어서 옷입어」

「왜?」

「나가」

「어딜 가요?」

「왜 이러케 잔소리가만흘까。구두도 마치고、교과서도 사야안해?」

「아이머니나!」

섯녀씨는 영문을 모르다가그제서야 깨단을해서 문칫、겁치규치가지들나도록 입이 버려젓습니다 기저귀의똥이 손에뭇는지마는지 녀슬일코 두어번 주무르다가 그대로 펑겨처두고말울올떠서 손을 가시엇습니다 그리고는 종종거름을처서 방으로뛰어드려갓습니다。

「애기를 어떠캐요?」

끄려녀석을 멜일이 거정이엇습니다。

「한오젼주어 애듣한테 떼기지럼!」

「그러치만 아우성을 칠텐데」

「처가나 딱가나」

「그럼 우선어허 내보낸시다…에 계호야 애어구나가가래 아버지가 오래 주인해니 다까먹지말구 이젠은 네게둬둥? 아맛지!」

섯녀씨는 보통학교입학때되는 크애를 좋마시키는데 어떠케신이나게 날뛰는지 대감노리하는때 축임주는 맛며느리 거동이엇습니다。

어머니가 장속에서 치마를께내입는것을보고 어린것의 우룡소리가노팟습니다。큰녀석은 아버지가주는 오젼한푼을 손바닥에노코 밀젓인가 실원인가 감정하기에바뻐 뒤로 재쳐진어린애를 바로잡고를 몰랏습니다。

「이자식아 어서업구나가」아버지가 뒤룡수를 빡친는 바람에 큰녀석은 누ㅡ런코를 직 훌러고 대문밧그로 조껴나갓습니다

거리에 나서면 내려고 뽐내는 양복쟁이 몽배군 아모리궁끼가 호르다치드래도 열사람가운데의 한사람의 임꿀은 가지고잇습니다。그러나 섯녀씨는너무나 동떠러지는 존재입니다。토막분을 발라 얼굴이 푸르둥둥한것도 추접스럽지만 머리빠에서 밀기름냄새를 피우는것은 동행하는 몽배군에게 여간한차욕이 아니엇습니다。그래서 전차를 타기전에 몽배군이 섯녀씨에게 은근히 주의시킨말이잇습니다。

「아모리 내외간이지만 여러사람잇는데서는 딴사람인체 해야해。」

그러구서는 숭차권까지 따로 떼여주엇습니다。

전차를 타고나서 그길로 바로 본정통으로 갓습니다。혹시 아는 친구를 만날까해서 몽배군은 마음이 주시여 견딜수업섯습니다。섯녀씨는 거리의핸빗이그러케도 눈이부신지눈을 찌그듯시뜨고 그만흔 사람틈바에서 그이를 노칠까해서 다리에자개바람이날뜻이 허둥지둥햇습니다

이집이나 저집이나 모두한룡속인듯시퓹은 진고개 어느가가에 들러 그사화한커렌을 신어보고 찻주길래 두맘업시 연구리에까고나왓습니다。또 어느가가에들려 이것이 마음에드느냐고뭇는데 그저고개만 끗덕햇드니 도 찻주길래 바려서 도떠구리에끼엇습니다。

기침에

요새에 어린애가하는기침은 감기・폐염기관지염・홍역・백일해의위험신호입니다 하로밧비「지밋신」으로 곳처주십시요

백일해・홍역

「지밋신」은 담・기침약으로 구미각국에서 유명한「지미草劑」의 代表的제약이니 기침에잘듯을뿐만아니라 맛이조흠으로 약을실허하는 어린애라도잘먹게됨으로써더욱 유효하며 더구나 조곰도 劇藥成分과 마취成分이 석겨잇지안음으로써 아모리 身體가弱한어린애에게도 아무부작용의염려업세 분대안심하시고 먹일수잇는약입니다。

거쳠병중에도 가장고통이 심한 백일해・홍역의특효약으로 칭찬을밧고잇사오니 초기에使用하시면 예방이되오며 병의진행중에使用하시면 경과를빌으게하고 고통이심한발작과 담・기침을 곳개이게하며 구토와쇠약을방지하고발잠을잘자게만들어줍니다。

밧튼기침・천식

조선에만흔 밧튼거침・담기침・천식・호흡기병으로인한거침에 무슨약보다도 조선사람의체질에꼭마저서 잘듯는다고 칭찬파검사로환영을밧고잇사오니 어느가정에도 꼭한병식갓추워두시사 기침을하거든한숙갈…잡체일배에한숙갈식…使用하서면 잠을잘자게되고 자는동안에 병세의 악화를방지하고 전쾌을빌으게만듭니다。

기침에잘듯고 먹기좋은약

백일해・홍역
밧튼기침・천식
인후염・만성담
기침・감기폐염
으로인한기침에

定價……一圓・一圓八十錢
근처약방에서사주십시요

東京市日本橋區本町
發賣元 株式會社 田邊元三郞商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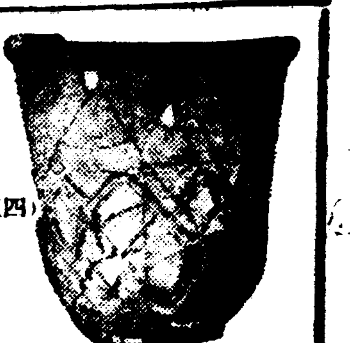
지 밋 션

TY-K-46

茶事故事 (四)

湖岩

高麗의茶村



高麗茶를 말하기前에 新羅茶故事에 對해서 도한마디 더 말할것이 잇다。 그는 다름것이 아니라 僊仙崔致遠이 역시 茶를飮用하엿는가 하는問題이다。 그의桂苑筆耕集(謝探請料錢)狀에 「本國使船過海。某欲買茶藥。寄附家信。云云」 等文字가 잇슴에 依하야 茶藥即茶와藥을 唐에서 買來하야다가 飮用한것을 짐작할것이다。

지금 이야기가 낫스니 말이지 新羅때 國仙郎徒는 茶를飮用하엿는가? 이는무슨的確한 史實이 업다。 그러나 新羅때 述郎의遺蹟으로 寒松亭에 石竈、石臼와 아울러 茶泉이 잇다。 茶泉은 말할것도 업시 茶를다리든 샘물이다。 이 傳說이 輿地勝覽에 저젓스되 寒松亭畔 有茶泉石竈石臼。 即述郞仙徒遺蹟。(輿地勝覽) 이로보면 新羅때郎徒도 飮茶한것을 알겟다。 新羅統一以後에는 郎徒의勢力이 차차微弱해젓스나 茶를 愛飮한것은 事實인것갓다。 만일 그러타면 新羅때茶는 郞徒의 坐禪하는 糧食이 되엇슬뿐아니라 郎徒의遊覽하는 糧食도되엇다。

高麗때 茶는 어찌되엇는가 高麗六代成宗께서 功德齋를 設하기前에서 손수茶를맷하야 佛에 獻하엿슴은 麗史에 나타난事實이다。 事實을보면 이弊가벌서前에光宗에서 시작되엇다한다。 高麗의王室으로 이처럼 佛僧의 末茶를 스스로 親造한다는것은 高麗때에 茶가 一般이 아닌가。 그러나 高麗때는 佛敎의盛行을 따라 歷代남겨이 佛陀의弟子로 自處하는터이라。 佛僧의飮用하는 茶는 더욱더욱 떠저 언제인가 宮廷에는 茶房이란 茶를여루는 官廳이생기고 寺院에는 茶村이란 茶를 바치는 部落이 생기엿다。 茶村에 對하야 그것이 어떠한것이지 알려고하면 通度寺事蹟略錄을 보라。 그것은左와가트니

寺之四方山川 裨補也者 基地四方周四萬七千步許。各塔長生標合十二。東有黃山洞石碑長生標一。南有沙川布川石碑長生標一。北有冬乙山獨石碑長生標一。中有仍川仇川各挾石碑長生標二。右四方長生標內…… 北冬乙山茶村 乃造茶貢寺之所也。貢寺茶田茶泉至今猶存不泯。後人以爲茶所村也。

通度寺의地界는 매우廣濶하야 境界의四標를 볼면 東에는黃山洞이잇는데 石碑長生標하나를 세웟고 南에는 沙川峰이잇는데 石碑長生標하나를 세웟고 北에는 冬乙山이잇는데 홀로 長生標하나를 세웟고 中央에는 仍川 仇川이 잇다。 右는四方長生標內이다…… 그런데 이四標內에 北에잇는 冬乙山茶村이 곳茶를製造하야 本寺刹에 바치든 處所라。 절에바치는茶를 栽培하든 茶田과 茶泉이 다라든 後人 오늘날까지도 남아잇서 後人들이 이를 茶所村이라고 한다。

이는 一例에 高麗茶時에 되리라고 한다。 年代는 알수 업스나 이茶村도는茶所村이 라는 事實이다。

그러면 茶村도는茶所村이 오늘날 어떠게 되엇는가 하면 同寺事蹟略錄 아래가서 「北茶村坪外乃因火舊之處也」 라고 저커잇는바 三國史記 地理志에 因火는 即彦陽이니 지금은 蔚山郡彦陽이 되엇다。

寺刹에 茶를 바치든 茶村은 通度寺外에도 다른 모든 大寺刹에는 흔히 잇섯스리라고 推想된다。 順天松廣寺가튼 데도 曹溪山茶라하야 高宋까지 世間에 有名하엿지마는 반드시 必需品으로 栽培하엿슬터인즉 여기라고 어찌 茶村이 업섯겟는가 高麗寺院經濟에 잇서 茶는 떼여노흘수 업는 物件이되엇것만은 注意하여야 하겟다。

노-벨文學授賞者 유-진・오닐斷想

—그生涯와藝術에關하야— (六)

金珖燮

브라운은 假面을 쓸줄알고되 온은 假面을쓰고살줄은드는— 前者는 도의魂이요 後者는 藝術의魂의象徵이다。 이것은 亞米利加文化—널리物資文化에의肯定과 否定에서오는 永久한鬪爭이다。 더욱은 嘲笑한다。 眞實로 아름다운生命을 創造하려는者에게 이어서는 오늘의文明은讚揚의對象以外의 아무것도안이다。 生을이어가기爲하야 靈魂을 일커나 靈魂을 살리기爲하야 生을 일커나—個性을破壞하는 現代文化의 두길이다。

모든 偉大한作家에게는 반드시 自己의主觀的苦悶을 客觀化한作品이 잇다고假定한다면 이 「偉大한神브라운」을 藝術家로서의 오닐—의 人生과藝術과 社會에對한 苦悶하는精神史의一面을 가지는 따라서 現代文化를 諷刺한 作品이라고볼수잇다。

다음 『毛人猿』에서는 오닐—은 世界의動力이라고 自稱하는 無智한 汽船火夫가 鐵鋼의王이요 그汽船主의 딸한테서 받는 侮辱을 이저버리지못하야 그것을 復讐할라고 世界의 金融中心인 뉴—욕에 내렷스나 意를 達치 못하고 그에게 다처오는것은 結局 監獄과 侮辱 뿐이엿다 그러하야 現代文化를 象徵하는 動物園 살창속에 들어잇는 類人猿을보고서 自己의 運命을늣기고 그것을 咀呪하며그 살창속에 自己도몸을거 뛰여드러가서 自己의運命을 自己스스로 類人猿에게 破滅하고만다。

오닐—은 이作品을通하야 現代社會制度를 解剖하며 批判하는 푸로作家의役割을 하려고한 것은 안이엇다。 오히려 그는 機械의奴隸를 通하야 原始的人間性이 機械와 或은乃至 메카니즘 機械文明에 依한 無情한壓迫을 嘲笑하는것을 暗示하엿다。

「아! 나는 어데로 逃亡하여야 하나? 어데로가야하나?」

이것은 現代機械文明의動力을 움지이는者로서 自認하는 類人猿가튼巨大한 앙크의悲鳴이다。 知力을 갓추지못한 無知覺으로 프로레타리아의 破滅되는運命의暗示를 우리는여기서 볼수잇다。

이作品에잇서서는 人間의原始的無情과現代文化와의接觸 그表現形式等 우리의 硏究的關心을 만히 끄으는데가잇다。

×

오닐—의全作品中 가장 巨大한構成을 차지하고잇는것은 亦是 三部十三幕으로된(三日夜를 要하는)『喪服의엘렉트라』다。 이것은 父女、母子의對角線的愛情을 中心삼아 殺人、狂亂、自殺等이 얽키여잇는運命劇이다。 一九三一年부터三二年에잇서서 亞米利加演劇의가장큰收穫이라는定評이잇섯다。 그러나그定評과함께 이作品을中心으로하야 오닐—은 멜로드라마티스트라는것이 한동안物議되엿다。 劇의進行或은 事件의對立 或은性格의類型化等을 들어서 그가 멜로드라마티스트에 틀림업다고 論評한것이 多數를 占하리만큼 그에게는 멜로드라마티스트的手法이잇다 그러나 이 作家를 쉽게 멜로드라마티스트로規定하기에는 그의藝術이 너무도 벗나는데가잇다。 勿論멜로드라마릭 大衆性을 害하는것은 안이나 그러라고 藝術家가 歡迎할것은못된다。 그에게멜로드라마的要素가잇다하더라도 그는이 미 亞米利加가保存할 幾個의 劇本을 남겨노앗다。 그것이 今般 노벨文學賞을 授與케된所以일것이다。 오닐—에 對하여서는 여러가지로 硏究할材料가만타。 그러나 나는여기서 이機會에 그를紹介함에 끄치고저한다』

—끗—

漢詩募集

題…松
押…松
限 十二月十日
(薄謝進呈)

조선어표준말모음(31)

둘재、비슷한말(近似語)

갸웃거리다 以下各小
까웃거리다
기웃기웃 窺視貌
끼웃끼웃 同强
갸웃갸웃 以下各小
까웃까웃
기웃하다 少傾
끼웃하다 同强
기우듬하다 同若干
끼우듬하다 同强
갸웃하다 以下各小
까웃하다
갸우듬하다
까우듬하다
낚시밥 餌
미끼 誘引物
낮은물 低處溜水
지지랑물 雨後草家簷滴
나가다 出
나아가다 進
난봉 浮浪者
날봉 同 高
낭장이 伎倡
따라지 작은사람의別名
낟알 穀粒

알 個粒總稱
알갱이 同上强
낡은것 久弊物
헌것 舊物
날쌔다 迅速
날래다 驍勇
날씬하다 纖長
날신하다 無氣
나른하다 疲倦
날작지근하다 同弱
느른하다 同大
늘적지근하다 同弱
남바위 頭巾(綠毛氈)
풍뎅이 同(綠毛氈)
나붓거리다 輕細搖貌
나볏거리다 同軟
나풋거리다 同重
나풀거리다 同輕
나울거리다 同柔
너붓거리다 以下各大
너볏거리다
너풋거리다
너풀거리다
너울거리다

나붓나붓 飄搖貌
나볏나볏 同軟
나풋나풋 同重
나풀나풀 同輕
나울나울 同柔
너붓너붓 以下各大
너볏너볏
너풋너풋
너풀너풀
너울너울
나부시 恭伏貌
나부죽이 平伏貌
나지리여기다 輕視貌
나지리보다 輕視貌
낮잡다 低視
낮보다 低視
나미여기다 不善視
나미보다 不善視
나흗날 月中第四日
나흘 四個日
내닫다 突出現
내놓다 公開出
내려디디다 踏下

내려치다 打下
내려지다 下降
떨어지다 落
내리긋다 縱劃
내려긋다 低劃
내리닫이 上下開閉窓
벼락닫이 落閉窓
내빼다 出走
도망하다 逃避
넉넉하다 裕足
푼푼하다 豐厚
너덕너덕 重重疊補貌
더덕더덕 散散付補貌
너덧 四五
네댓 四五假量
너더댓 四假量
널리다 擴廣
넓히다 擴大
넓다 廣
넓죽하다 稍平廣
넓적하다 稍長廣
넘겨집다 推付度
넘실거리다 起浪貌
넘성거리다 同欲
넘늘거리다 同急
끼룩거리다 延頸貌
낭창거리다 以下各下

날름거리다
깨룩거리다
넙치 生鰒魚
광어 乾鰒魚
너스레 鼎底設架
너울 婦女掩頭具
너털거리다 散垂搖
너불거리다 同輕柔
나탈거리다 以下各小
나불거리다
너털너털 散垂貌
너불너불 同輕柔
나탈나탈 以下各小
나불나불
너울가지 交際手段
너름새 虛張周旋
주변성 周旋才
노끈 細繩
노오라기 同小片
노나다 鏽發生
녹슬다 同多着
동녹나다 銅鏽發生
동녹슬다 同多着
녹두묵 綠豆粉凝
청포 水泡綠豆粉
제물묵 粗製綠豆粉
논두렁 畦
논둑 堤壘
노다이다 頭語
노다거리다 同强語

높이 高
운두 器物高
녹녹하다 濕柔
녹록하다 同小
눅다 緩
누긋하다 稍緩
눅진눅진 黏靭貌
녹신녹신 同脆
눅실눅실 同軟
누글누글 同緩
누긋누긋 同
녹진녹진 同柔緩
녹신녹신 以下各小
녹실녹실
녹긋녹긋
노글노글
누구 誰某
아무개 某
눈깜작이 頻瞬者
눈껌적이 同大瞬
눈끔적이 同小瞬
눈곱 眼垢
눈곱재기 同小瞬
눈대중 頗精確目測
눈어림 不精確目測
눈방울 眼球
눈망울 眼睛
눈에선하다 宛然在目
눈에밟히다 死兒宛在目
누덕누덕 累補貌
노닥노닥 同 小
누르다 黃
누렇다 深黃

누르다 以下各小
노랗다
누름적 菜肉炙被黃
화양적 熟菜肉炙
누릇누릇 黃色點點貌
노릇노릇 同 小
누르스럼하다 淡黃
누르께하다 同稍深
노르스럼하다 以下各小
노르께하다
누룽지 焦滓
누=밥 焦飯
는적는적 脆貌
는질는질 同 黏
난작난작 以下各小
난질난질
늙수그러하다 頗老
늙숙하다 老成
늙정이 老衰者
늙다리 老朽動物
느럭느럭 徐緩貌
느릿느릿 貌弛緩
늘어나다 延長
늘어가다 進就
늘이다 延
늘어뜨리다 延垂
느림 綠垂物
드림 長懸垂物
느물느물 行動陰秘貌
늑실늑실 同陰貌貌
느슨하다 緩
나슨하다 同小
능갈치다 能幹
능청스럽다 僞飾

능금 林檎
사과 同改良種
놋잡죄다 匪束弛緩
늦춰주다 與自由機會
능큼 快速
낭큼 同小
따금거리다 刺痛
뜨끔거리다 同大
따끔따끔 刺痛貌
뜨끔뜨끔 同大
따갑다 熱
따끈하다 解熱感
뜨겁다 以下各大
뜨끈하다
따근따근 辛熱貌
따끈따끈 同强
뜨근뜨근 以下各大
뜨끈뜨끈
딴말 異說
딴소리 同稍卑
딴전 別設事
생소리 不合理語
딴머리 假髮
꼼머리 新婦盛裝假髮
따뜻하다 溫
뜨뜻하다 同重
다숩다 溫
다스하다 稍溫
딸 女
딸자식 女息
땀빼지다 汗出
진땀빼지다 津汗出
땀받이 汗受衣
땀등거리 汗褙子

떡 餠總稱
편 餠糧類
떠듬떠듬 吃貌
떠듬적떠듬적 同甚
따듬따듬 以下各小
따듬작따듬작
떠듬다 吃
떠듬거리다 同繼續
떠듬적거리다 同 甚
따듬거리다 以下各小
따듬작거리다
떨떠리다 示威勢
떨치다 振張
떠뜨하다 稍滋
떨떨하다 相滋
똥구멍 糞門
밑구멍 底孔
똥기다 教示
똥겨주다 爲人教示
또한 且又
역시 亦是
뚜껑 蓋
덮개 覆物
두덕거리다 叩打
두덕거리다 同重
두덕두덕 輕叩聲
두덕두덕 同重
뚤 階
마당 場
똑하다 中止狀態
머출하다 一時止
다 皆
모두 全體
몽수이 全數

최다 各皆
모조리 同順序的
깡그리 同齊一的
타나무 楮木
닥 楮
닥치다 迫
다또리다 直當
다닥치다 急迫
다닥뜨리다 急直當
맞닥치다 相迫
맞닥뜨리다 相直當
부딛치다 觸
부딛뜨리다 同全的
마주치다 相對觸
단 小束
畏 稍大束
다발 單一件
다거리 單一材料
닫다 閉
닫치다 同强勢
딸각거리다 堅物觸動
떨걱거리다 同 强
딸각거리다 以下各大
떨걱거리다
딸각딸각 堅物觸動音
딸각딸각 同 强
떨걱떨걱 以下各大
떨걱떨걱
달겨들다 突入
대들다 反抗
덤비다 驚動
달콤새콤하다 甘吉味
달콤새콤하다 同佳
달콤새콤하다 甘酸味

말큼새큼하다 同重
달콤하다 微甘
달큼하다 同大
달콤하다 同重
말큼하다 同上大
닭의장 鷄籠
닭의어리 鷄塒
닭의홰 鷄塒
닭다 身熟
달치다 同强勢
달음질 走
달음박질 急走
담다 盛
담그다 浸
담배함 煙草盒
담배설합 煙草舌盒
담벼락 墻面
바람벽 壁
다음 次
지차 次位
대각거리다 堅物微觸
때각거리다 同强
데걱거리다 以下各大
떼걱거리다
대각대각 堅物相觸音
때각때각 同 强
데걱데걱 以下各大
떼걱떼걱
대거리 代價
대가픔 代報
대그르르 以下各小
때그르르
댁대그르르
대글빼글

떼대그르르
때글때글
대대굴대대굴
때대굴때대굴
댓가지 竹枝
댓가비 削竹棒
댓조각 竹破片
댕강댕강 金屬相觸聲
뎅겅뎅겅 同大
댕댕 鐘聲
땡땡 同强
대중없다 無標準
종작없다 無定見
대청 竹內薄膜
댓속 竹內部
속대 白菜心葉
더쳐 牛胃冬席
언치 馬鞍下毛布
떨치 牛鞍裏篷
더듬더듬 摸索貌
다다다다 同小
다다귀다다귀 同
더덕더덕 疊縫貌
더지더지 同輕
다작다작 同小
더듬다 探搜
더듬거리다 同上貌
어루더듬다 同虛搜
더둠더둠 探搜貌
더듬적더듬적 同
덜덜 寒戰貌
달달 同小
벌벌 畏懼貌

南海沿岸住民의 民謠와俚諺 (一)

金思燁

多島海의달밤

가을도저물어 첫겨울이 바야흐로臨迫한 요지음 한 十餘日間 筆者는 學友方鍾鉉兄과 더부러 蔚山、統營、三千浦、南海島、麗水、濟州島等 南海沿岸一帶를두루도라 俚諺、方言、民謠等을採集或은 調査도하고 寺刹이나鄕里에 아모所用업시 굴러다니는 諺解類의 古典籍이잇스면 그것도 함께 探索하자는 所謂蒐集과 搜探의 行脚을나섯섯다。

이번 이거름을 計畫한데는 두가지로써는 두가지큰 動機가잇섯스니 卽南海沿岸一帶 卽多島海沿岸地方은 아직아모런 이方面의調査가 되지안코잇슴으로 大綱이나마 살펴보아서 硏究할 어떠한 材料를 어들수잇는지알은다음 勿論豐富한 材料가잇는줄안다면 後日다시 適當한時期를 利用하야 徹底히 穿鑿하자 함이오 다음하나는 우리는 이미 內陸地의 俚諺만은 大略蒐集이 되엿스나、特殊한 地域에 處한 濟州島俚諺만은 아직 調査의 손이 밋치지못한 그대로 잇스니 該島俚諺을 蒐集하여보자함이엇섯다。

그러나 時日이 短促함에 不拘하고 旅費의 窮乏으로 盲人丹靑求景에지나지못할것이며 調査方法 또한 未熟한 相當한 困難이 잇스리라는것은 우리도 이미 自覺한바이나 그러나 우리와가튼方向에 留意하야 探集을 試驗하여보려는 이에게는 他山之石이라도될줄알아 이에 그記錄을 紹介하려고하는바이다。

筆者만은 準備兼親의 允許를 엇기爲하야 方兄보담 하로 압서 客月三十日아츰 故鄕金泉서 하로를묵고 밝는날 午後二時에 金泉驛서 그날午前京城을 떠나온 方兄과 同乘하게되여 정작 우리旅行은 三十一日부터비롯하엿다

十一月一日 아츰에 이러나보니 날새가흐리고 바람까지 몹시분다。 汽車만 長時間타도 車멀미를하는 方兄은 이런날새에 그리로지못한 배를타고 오랜時間동안까불리며 가게되면 반다시 水疾을 이르키여 큰苦痛을 보고야말것이다。 어재만하드래도 京城서 釜山까지오는동안 點心안이라 아모것도 먹지못한 그이엇섯다。 旅裝을 整頓하고 洗手를하며 行裝을꾸리는동안 노상 호자말처럼 날새를걱정하고잇다서 우리는 그날로 統營行을 統營한보람이 暴發以上만흘 이엇서던를 우리는 두고두고이날의 失敗를 後悔하엿슬는지모른다。

絶影島는 一名牧島라고도하고 그저 影島라고도 부르는 釜山本土의 東南에在하야 周圍七里假量이며 南端에는 松樹가 茂生하고 떠욱이 絶壁은 여름한철 海水浴에 適當한곳이되여잇다 山頂에는 國山島에서 ……

鷺山近著 『無常』을읽고 (二)

梁柱東

그러나 그도그럴것이、鷺山은 이一卷에서 『人生이란 結局무엇인가?』 『生은 과연 무엇이며、死는 畢竟무엇인가?』 하는 따위의 根本的 命題에對하야 그의該博한三敎의 知識으로써 縱橫으로 引證說法을 하엿지마는 그것은決코 單純히 古人의糟粕을 羅列함이 아니오 어대까지나 그의 切切한實感에서 비롯소 引用된것이니만치 그의著作의 底調에는 無常한 글과말로써 맛지못할피와살이 얽혀잇다。

만일글이란것이 情에서나오는것이라면、사람의 情은 畢竟肉親의情보다 더한것이 업스니 天下의至文은肉親의 애듯한 至情에서부터 나옴이 當然한 일이다。

더구나 鷺山은 남보다 더 한層 애듯한 情을가진 多感한詩人이오 누구보다도더 人生의 孤寂을 늣기는 求道의 길손이다。

그러한 그가 肉親의 至情으로써 이제 手足을 여힌 그 斷腸의 心事를 이모저모로 敘述하여 노흔 이文學는 그思想으로 보다도 그 宣論과 說法으로 보다도위선 그 眞摯하고도 深刻한 情의 흐름으로써 사람을感動시키기에 足할것이다。

○

鷺山은 善知識이다。 나는 이 한卷을 精讀하면서 몃번이나 이말을 되뇌엿다。 『어허! 天地가 無常하고나。 無常 곳 阿僧恒也!』 과연 무엇이 無常인고。』 이 長篇大文字의 哀悼歟語는 確實히 하나의 悲嘆이다。 진실로 無常이 무엇인줄을 참집어 말할수잇다면 無常이 이미 無常이아니지라、說經萬八千은 무어에 갈하며、『無常』一篇은 써서 또 무엇하랴。 진실로 無常이면서도 無常이 무엇인지 모를 境地에 잇슴에 비로소『無常』이 쓰여지는것이니 鷺山은 善知識이다。

『阿僧恒也!』 今업이 오는 그날、豆粧一生의 다논 일合을 열어 蘇醒花의 新鮮한 花汁을 맛볼 때에 그와 저、너와 나、겨게 隔離의 休息아래、定重한 어느뒤 그름 者라。 무엇을 노피며 또 무엇을 업수업겟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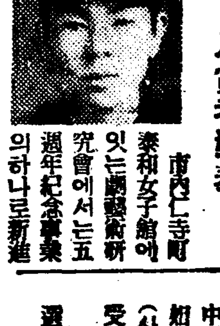
『阿僧恒也』이라하매 그나무다 통만끄러 『요단江』이라하매 그물다 건너간뒤에 또苦痛을 맛볼것이 다시는업스리란 主여 당신은 어찌하야 거기 天堂과 地獄의 門을맨하엿스며 佛하 당신은 어찌하야 樂土와 沃焦의 苦를 說하엿나뇨。』

善知識이라함은 반듯이覺者를 意味함은아니다。 제아모리覺者라도 아직은 迷의 境이 잇기때문에 覺의意識을가지는것이니 迷와 悟는 究竟에서 一如가아닐까。

阿僧恒也! 『佛告須菩提하사대 凡所有相이 皆是虛妄이니 若見 諸相이 非相이면 即見如來리라。』 生死가 어미 非相이어니、佛은 우리에게 어찌또 生死의滅度를 說하는가。

『會且다、人生一生이 이와 갓고나。 소낙비를 避하야남의집 처마미테 잠깐셧다지나가는 그것아닌가。 지나가면 그뒤에 차즐길업시 어느곳에 머물고간지 알길도 업시。』

『劇硏』戲曲賞 入賞者發表



京西仁寺町 泰和女子館에 잇는 劇藝術硏究會에서는 五週年紀念事業의하나로 新進劇作家의登龍門을열어 새로운 戲曲創作에 新機運을開拓코저 『劇硏戲曲賞』制度를創設하고 第一回로 戲曲을 募集하엿든바 劇硏戲曲賞審査委員會에서는 去七日 二百餘篇應募作品中에서 最後審査를하야 左와 如히 受賞者를決定하얏다한다

受賞 『길』(全四幕) (賞金一百圓) 金鎭壽

(사진은 金鎭壽君)

選外佳作 薔花君(全四幕) 咸世德

입센原作 延專硏劇部譯

『적은아이을프』(三幕)

입센記念演劇의밤

時日 十二月十一日午後七時半

場所 府民館大講堂

一般入場整理費五錢均一

主催 延禧專門學校硏劇部

後援 朝鮮日報社學藝部

讀者室

▲自動車助手나 或은商店員을 願합 滿天下사랑이기푸시고 同情마는신 諸先生님이시여 小生은今年二十歲의 農村青年이옵니다 二年前에 京城서苦學으로學校을다니다 結局은 未完成의길을밟엇습니다(實業學校中途退學) 歸家하여 農事에從事하는者입니다 自動車助手나 或은店員을採用하시거든 이불상한者를 차저주십을 千萬伏望이로소이다 다만暖食만시중하여주시시요 求人하시는 諸先生님이시여 다만談衙로 要求하는바입니다 (慶北一讀求職者)

▲讀者諸位께告함 本紙本報新聞二枚書面內 實錢町三丁目二〇四番地 金慶斗에게로 보내 주시면近刊キング文庫一冊式發表하겟나이다 十月八日附朝刊 十一月二十六日夕刊(讀者室)

新刊紹介

○靑年金玉均 金基鎭作 現代朝鮮長篇小說全集第六卷 第二回配本(目次)발동의휘소리 벽드른조선、黑白、소란한물결、白衣水相、거룩한비밀、위태한계획、봉화를들고 날이밝을때 경우구름、살인전하、피、잘잇거라 作者의附記 附錄=봄이오기전(短篇) 發行所 京城府堅志町三二 漢城圖書株式會社 振替京城七六六〇番 定價一圓五〇錢 送料十錢

▲新興佛敎新聞 第一九七號(月刊)發行所 東京市豊島區雜司ケ谷町一ノ六〇 佛旗社 振替東京五三七〇一番 定價五錢

★曆★

十二月十日(木) 舊丙子十月大(廿七日) 丙寅・火・角・滿

●裁衣動土上樑未時開市納財修倉에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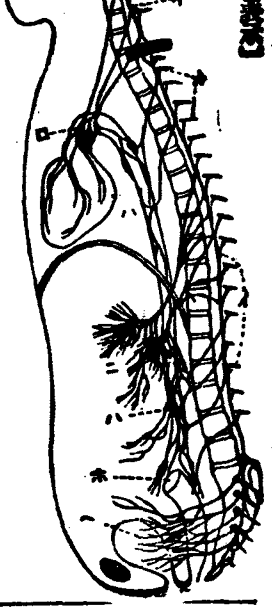
●小雪二十二日(舊初九日)

●大雪七日(舊廿四日)

梅毒大衆醫學講座 第一篇

梅毒 脊髓癆의 初期症狀에는 神經痛、厥冷이相伴한다

向寒時期에警戒하라



【脊髓의表示】

脊髓는人體의大黑柱이다大黑柱에故障이잇스면當然히다른部分에故障이생긴다脊髓는人體大黑柱病이다 그危險狀態를左記本文으로알도록하라。

가、腦中樞를犯하는梅毒
나、心臟과肺를犯하는梅毒
다、梅毒性動脈硬化
라、마、梅毒性胃腸病
바、膀胱을犯하는梅毒
사、脊髓의神經을表示함

脊髓癆의初期

梅毒에걸리여서 무서운病狀이아닌것이하나도업스나 特히치운때에는 神經痛이나 류마치스 厥冷等의病狀으로 呻吟하는사람이 만하진다 가장이러한病狀도單只感氣라든가 執務의疲勞等으로생기는것이면 別般念慮할必要도업스나 事實이것이 梅毒性인지라 또아니失敗를 할뿐아니라 梅毒中에도 가장危險한 脊髓癆에걸릴念慮가잇다。

脊髓癆의 初期脊髓癆는 俗俳痲痺라하야 足腰가不自然하게되는梅毒으로그初期에는神經痛、류마치스와가튼、痛症이 이러난다 그사람의體質如何에 따라오래繼續되는사람도잇으며 또激痛이 卽時로 낫고마는일도잇다 그뿐아니라脊髓癆에걸리기前에는 胃腸이낫버지고 吐瀉를하며 便秘하는수도잇음으로、全然히放心을할수업는것이다

惡化한病狀

病狀이進行하면全身에 厥冷이잇고 떠욱이手足에는 벌레가기여가는듯한 狀態가되며脊柱와腰部에 수시는듯한痛症이 이러나고 頭重으로아프게되다 또다리가 非常히압하무릎을自由로쓰지못할뿐아니라 瞳孔도光線을바드면 不變狀態가되여 이제는 安心치못할脊髓癆가되는것이다

보기흉한病態

또 脊髓癆는、遺傳梅毒에서도 後天梅毒에서도되는것으로 惡化하면 顏面은 左右로 畸形이되여스고안지못하게되고、나중에는다리가셰고、걸음、손등이빠지고、목이…… 病患者가되며、다시볼수업는曠恨가되고만다 그러나이러한恐怖梅毒도、梅毒에걸리어 조치의 못하는것이아니고 治療를하면……

潛伏期의放心

이것을 惡化식히여、脊髓癆뿐일까、밋치다든지、뼈와살을 용서업시썩히는고무腫에걸린다든지하는것은 이病特有의潛伏期에 全治한것이라心得하야 治療를中斷한다든지 姑息療法에滿足하고잇는結果이다。

梅毒의治療法은 多種多樣으로 特히 梅毒은血液과 脊髓液에潛入하야 侵害를주는것으로 全身的療法을 하는것이가장 安全하다

이러한사람은

現在 梅毒、體毒、올비롯하야 痳毒、가래토等에 苦惱하는사람、또遺傳、腦梅毒의 念慮가잇는사람、前述한바脊髓癆、고무腫、神經痛、류마치스、其他動脈硬化나 便秘等 梅毒性의疾患에呻吟하는사람은勿論疑心이잇는사람은 꼭 代表的驅梅藥베루쓰丸으로 理想的治療를斷行할것이다

本劑는이미 오랜歷史를가지고잇는日本內地는勿論 멀리海外에까지販賣되여그實效를 信賴함을 特히말하여둔다

本劑의主能은

고압호로 念慮가업다。

베루쓰丸은 이러한意味에서實로理學的驅梅服藥으로 先年日本醫學大會에서 獨逸의사와진博士가發表함과가티베루쓰丸의主劑는 血液淨化、解毒、殺菌等의 有効作用을 具備한것으로 恒常本劑를 服用하면은梅毒의重篤症을 不問하고血液이淨化되며殺菌作用을 爲하며 日常産出하는食物들의分解毒素까지도排泄함에잇음고綜合한快癒效果를보임으로는血液의循環과新陳代謝를조케하며 罹病者들에게서非常한好評을밧고잇다

梅毒과體毒 梅毒性부름에

베루쓰丸

〔便藥〕

梅毒、體毒、痳毒、横痃毒、冷毒、脊髓癆、腦梅毒、遺傳梅毒、류마치스、瘰癧、皮膚病梅毒性부름、여드름、動脈硬化症、梅毒性便秘等總히梅毒性疾患에良効잇슴。

六日分一圓、十二日分二圓、廿日分三圓、卅五日分五圓、七十五日分十圓、百六十日分廿圓 二百六十日分(德用)卅圓

送料四十二錢 代引十五錢增

東京市日本橋區濱町三丁目四十番地

發賣元 鈴木日本製藥社 社長 鈴木淸二

振替東京一〇五番 電話茅場八〇番九〇番

代理店 京城 木村、新井 釜山 大黑、藤田

밤하늘을날러서 (에오-디아映畵 레이몬드·베르나-로) 밴듸이나벨라主演

토-키創作方法 (5)

토-키몬타쥬論의昨今

林蔚川

理論家들이 많이드는 例로서 엑크의『人生案內』에서보면 不良少年 무스타파의배(腹)를 少年保護官이 작난으로칠때 들리는소리는 북(太鼓)을 칠때와가튼音이난다 물론現實的으로는잇지못할一致가 맨들녀질때 우순맛이생긴다 먼距離에 떠러저잇는이것은 한개의內容을가진 對位法이라고할수잇는것이다

푸도킨은 이러한말을하고잇다 『그러한對位法에依하여서만 幼稚한高實主義가 克服될것과 또는創造的으로 取扱되는 토-키ㅣ가운대 潛在하야잇는 意味의 深刻味를 發見케되고 測量되을 안다』

그러므로 非同時性이나 對位法은 토-키ㅣ形式의重要한 特徵이되지만 토-키ㅣ몬타-쥬의 여러가지 可能한것가운대의 한나에不過한것이다 우리가 從來의無聲映畵의 몬타-쥬에對해서 이제音과畵面의 同時的인것을 交叉식히는 即토-키ㅣ몬타-쥬가생겻다고 (音과影像이 單純이和合되것이아니고 그두개가 有機的인 高次的統一인것 으로서)할수가잇는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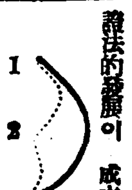
이러하야 러시아에잇서서의로-키ㅣ몬타-쥬論으로서 發展된段階인 에이젠쥬타인의『相剋의몬타-쥬』理論이 形式主義的인말하자면 機械的인辨證法을適用한 缺陷이잇다하드라도·토-키ㅣ藝術論의 스타-트로서오날까지 그以上더새로운發展을보지못하고잇는것은 事實이다。

×

에이젠쥬타인의 二次元的發展인 몬타-쥬說이란것에對하야 어떤論家는 三次元的發展을 辨證法的發展이 成立되는것으로立說하고잇다 簡單하지만 이것은 단순한紹介의意味로서 다음에쓰겟고 나는敢히 그것의批判은 하지안습니다

即 에이젠쥬타인과가티 『對立』을 發展의모멘트로想定해서 對立을辨證法的發展의 單位로하는것은 誤謬라고한다 對立으로 말하면 三環性을意味한다 그럼으로 이경우에잇서서 에이젠쥬타인의 單位는 三次元的發展에 對한 二環이다 몬타-쥬畵面에 依해서表現한 三次元的發展을圖式해서 分析하면이와갓다

몬타-쥬畵面



畵面 2가처음에斷片轉換을에서 다음의斷行轉換에 移動함으로서 斷片 1과3과의 相互關聯지도 結合할수잇게되는것거기에 몬타-쥬全體와 部分과의辨證法的關係가되고 따라서 有機的相互辯證性이 構成되는것이다 이 三環을單位로하는때비로소辨證法的發展이 成立된다고 또 斷片 1과 2에 잇서서 前後의 關聯이 새로운 2와 3과의 關聯으로 轉換하는것으로 因하야 1과 3과가 새로히 前後의 關聯을 結合한다。이境遇에 斷片 2가 最初에는 『뒤』에잇게되고 後에는 『처음』에오는것으로서 그것의 發展에잇서서의 位置를 轉換하는것으로서 斷片 1과 3은結合되는것이다。

그러므로·몬타쥬의 三次元的發展을 認定하여야되고 또 그것으로 因하야 이有機的辨證法的美感을 保證할수가잇다는것이다。

──以上에서 要約해서본 所謂三次元的몬타-쥬는 크레숍映畵論에서 映畵의基本的特質이畵面의 轉換에서오는 流動的美感의 連續과 轉換의 單位로서그것을 結合할녀는것이고 푸토-킨이말한듯이 몬타-쥬의 特殊한리즘으로서 移植케해야된다는것이다

그리하야 이三次元的몬타-쥬論이 에이젠쥬타인의 相對的몬타-쥬의 辨證法的發展을 批判하되 即 事物의 發展의모멘트는 恒常矛盾에잇는것 따라서 一畵面을 構成하는 諸要素間의矛盾 即 畵面과 畵面과의 對立으로 토-키ㅣ에 잇서서는 音과畵面과(의矛盾이) 몬타-쥬의 連續과轉換을 形成한다고 主張하는것은 誤謬가잇다고 指摘되여잇다

×

三次元的 몬타-쥬說은 紹介하는데 끄처다해도 너무 簡單햇고 蛇足의感이 업지안으나 後日再論하기를 스스로 約束해두고 이글의 結論을 다음과가티 지으려한다。

푸도킨은 그의 映畵俳優論에서는 俳優가 몬타-쥬形象過程가운데 演技的으로 演技를 느어야될것과 따라서 새로운 씨나리오의 形式을 提唱하고 몬타-쥬表를 合理的으로 또는 獨創的으로 改善하여야 된다고한다 다시말하면 形式主義로 訂正하야한다 이러한 理論은 다른 몬타-쥬論에서도 同一한傾向으로서 獲取되는것으로 압프로完全한 토-키ㅣ理論을 完成하는데 大注目할만한일이다 새로운토-키ㅣ理論은 역시 몬타-쥬論의展開가운대 正當함을차즐것으로믿을수가잇다

十年後의 텔레비죤時代?

興行界는

十年後의 興行界는 어떠케될것인가? 現在는 映畵가 中心이되여잇스나 十年後에도 映畵가中心이될수잇슬가 이것은疑問이다 識者들의 지금統一된 意見을綜合해보면 十年後의 興行界에는 텔레비죤이 中心이 되리라한다 最近의 世界各國의 텔레비죤의 進步는 非常하야서 벌서 그것이實用의域에 이르고잇다

[illegible] 發達은 [illegible] 許可制度 [illegible] 放送의 指定制度가 [illegible] 放送計劃 [illegible] 一般放送이 開始될것이다 또한 [illegible] 技術的研究는 [illegible] 現在二米突平方까지 擴大되여잇스며 英國도 近日一般에서 放送을 開始하엿다고한다 이것은 라디오의進出과함께 뉴-스의報道를 擴張하며 映畵의興行界王座를 [illegible]하야 [illegible]하고잇스므로 十年後의텔레비죤은 興行界의中心이될것이라고觀測된다

라디오

九日(水曜)

◇午後六時 맨돌린合奏 一、常勝軍 二、집씨딴스 三、城主人形의꿈 四、人形의꿈과 깨입 五、말사란、미아 六、마니온의까봇트 七、林間逍遙 八、遠足의歸路 京城醫專맨돌린合奏團
◇同六時二五分 兒童新聞
◇同六時三〇分 [illegible]
◇同七時三〇分 (平) [illegible]
◇同八時 流行歌 一、[illegible] 二、[illegible] 三、[illegible] [illegible]
◇同八時三〇分 방아타령外 一、방아타령 二、개성난봉가 三、한강수타령 四、사발가 五、흥타령 六、노래가락 七、창부타령 申海中月 洪笑月
◇同八時五五分 連續唱劇調 (第四夜) 一、短歌 天下泰平 二、唱劇調 三國誌中軍士點考하는데 宋萬甲 鼓手 丁元燮
◇同八時三〇分 管絃樂 一、레스투듸안티나…빨드로이엘作曲 二、프라·듸아볼로…오-베르作曲 三、메뉴엣트…파데레우스키作曲 四、피크·데임…차이코우스키作曲 延專管絃樂團 指揮 朴慶浩
◇同九時 連續唱劇調 一、短歌 二、唱劇調 三國誌中華容道 大丈夫 丁貞烈 鼓手 韓成俊

第一放送

◇午後六時 (東) お話
◇同六時二五分 (城) 講演
◇同七時三〇分 (城) 講演
◇同八時 舞臺劇
◇同九、(東) 管絃樂

十日(木曜)

◇午後零時五分 압山打令外 一、압산打令 二、뒷山打令 三、경발님 四、령변가 五、긴난봉가 六、자진난봉가 金蘭紅 金鍾香
◇同一時一五分 法律講座 法律 로보貞操(一) 尹元上
◇同六時 어린이科學『汽車이야기』 沈亨弼
◇同六時二五分 講演(全中)『朝鮮天然記念物에對하야』 城大豫科敎授理博 森爲三
◇同七時三〇分 講演『各地의冬節行事』 徽文高普 金道泰
◇同八時 歌曲 一、界面 二、弄 三、羽樂 四、界樂 五、編 金美花 金愛慶 洋琴 金相淳 大琴 金永根 杖鼓 金一宇

十一日(金曜)

◇午後〇時五分 回心曲
◇同一時一五分 法律講座 法律 로보貞操(二) 王三得 適士元 尹元上
◇同六時 管絃樂 DK管絃團
◇同六時二五分 兒童新聞
◇同六時三〇分 講演 〃輸血이야기〃 醫博 朴昌薰
◇同七時三〇分 講演 同情週間을當하야 京城府方面委員聯合會長 芮宗錫
◇同八時 (大) 獨唱과二重唱
◇同八時二五分 關山戎馬外 (京城) 一、關山戎馬 二、山念佛 三、긴아리 四、打令 崔貞予 金秋月
◇同八時二五分 배뱅이굿(平壤) 李根雨
◇同八時四五分 時調(京城) 一、平時調 二、지름 三、辭說時調 尹從善 洋琴 池龍九
◇同九時 古談 〃義林地由來〃 張志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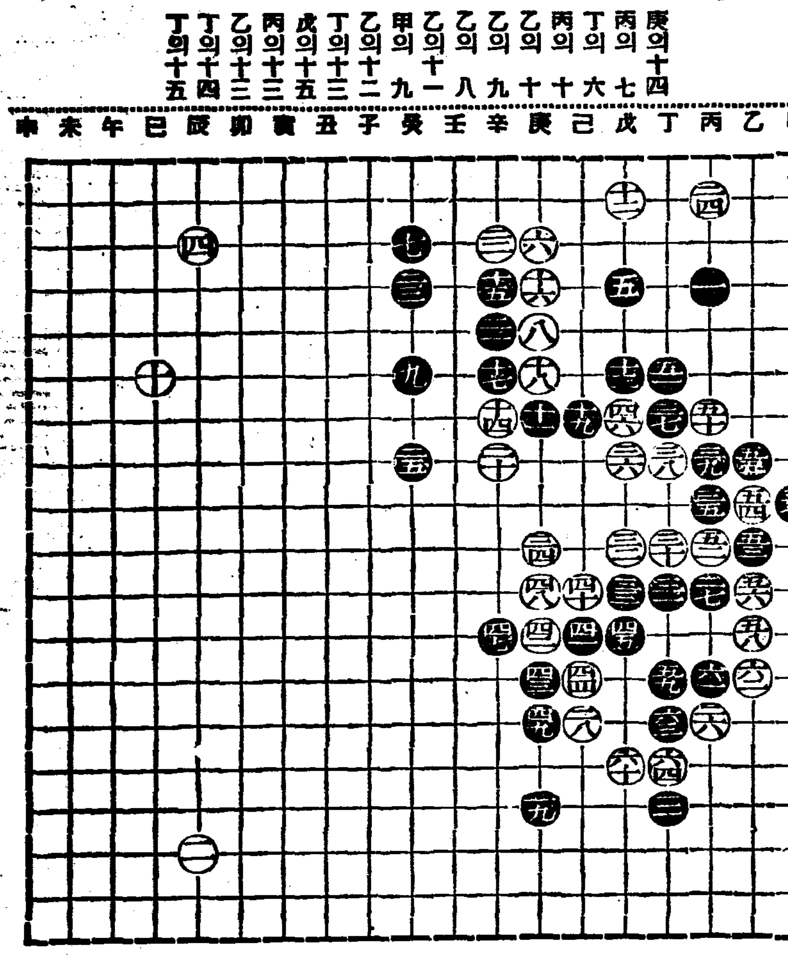
第一放送

◇午後〇時五分 (城) 歌謠曲
◇同六時 (東) 合唱
◇同六時二五分 (城) 講演
◇同七時三〇分 (大) 講演
◇同八時 (大) 獨唱과二重唱
◇同八時二五分 (東) 常磐津
◇同八時五〇分 (東) 浪花節

圍碁對局譜 ─4─

本社主催

白 蔡極文
黑先 權乘都



四九 庚의十四
五〇 丙의七
五一 丁의六
五二 丙의十
五三 乙의十
五四 乙의九
五五 乙의八
五六 乙의十一
五七 甲의九
五八 乙의十二
五九 丁의十三
六〇 戊의十五
六一 丙의十三
六二 乙의十三
六三 丁의十四
六四 丁의十五

觀戰者談 白이 乙의九로 斷치말고 乙의十一로 斷하면 來開方便도 될뻔 損이안인가 白이 丙丁十一區黑을 分明吞取로 自信하인듯 黑의 危機가 一髮에 瀕하엿스니 脫出方法을 한번 講究할일

俳優손자욱保管

할리웃드의有名한劇場──차이니-스·씨아타-에서는 녯날부터有名한 俳優들의手型과 足型을떠서 永久히 保管하야두는대 目下人氣가 嘖嘖한少年役스타-푸레듸-바-소로뮤-도 흥영한 세멘트우에 自己의손을 눌러서 手型을떳다 이세멘트手型에는 녯날 루돌프、픽포-드、차-리등 有名한스타-들의것이모다 保管되여잇서서 歷史的으로 貴重한記錄이라하야 어야기거리가되여잇다(寫眞은 바소로뮤-의手型뜨는場面)

ホルモン配合の 肌の若返る

クラブ美身クリーム

更に準壹等當選賞品追加 二千反追加贈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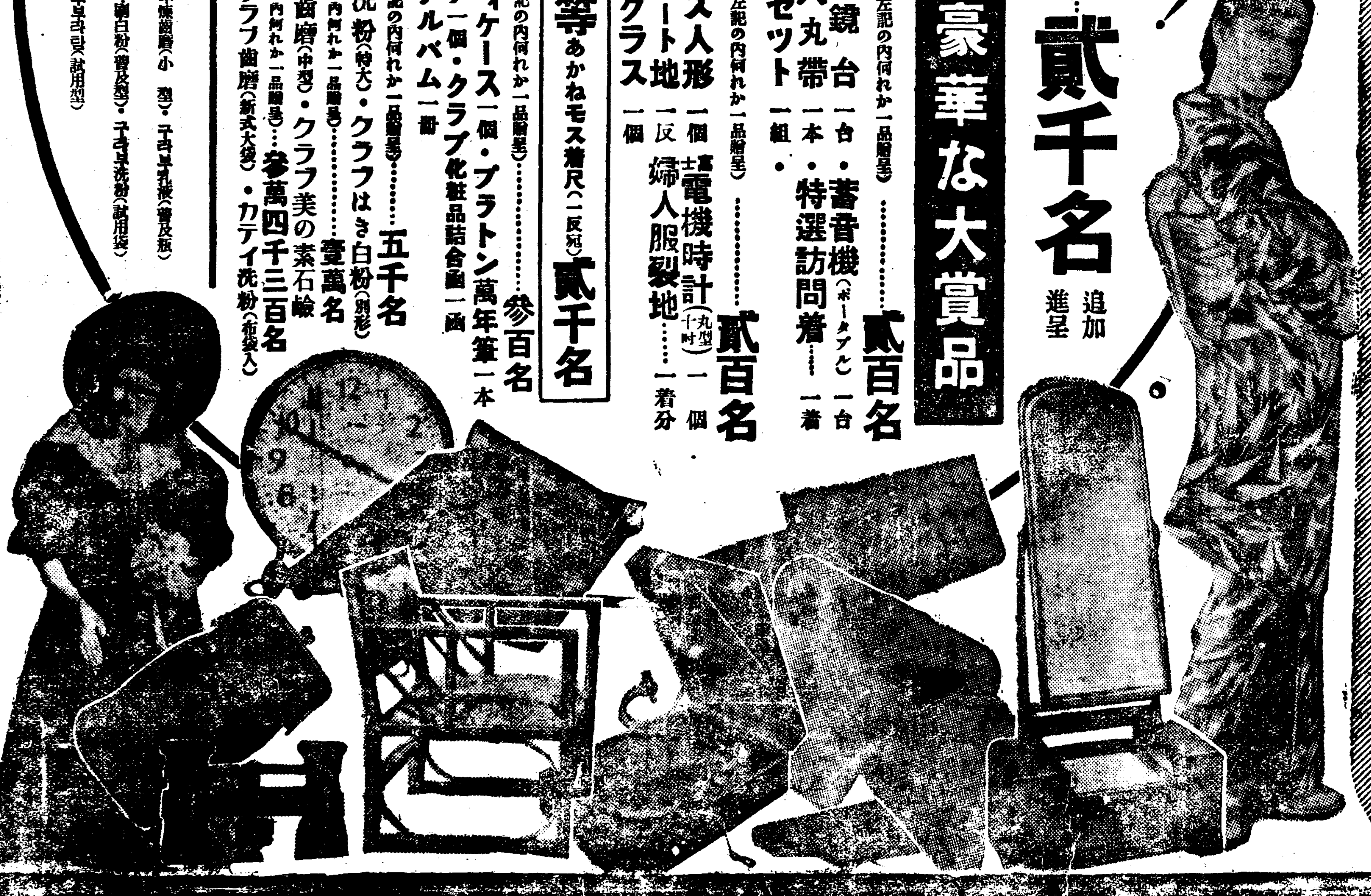
愛用者參百萬名優待 大懸賞きつ賣出

目下 壓倒的人氣와 絕讚을받는 구라부美身크림의 大懸賞付賣出은 世界的 最優秀國產品이고 또 愛用者各位의 愛國的同情에依한 輸入防止의使命을 날마다 達成하고잇슴은 感謝不已한바이다 구라부化粧品本舖는 諸彥의 謝意를表하기爲해 玆에 濠毛防止國產代用으로 進出한『あかねモス着尺』二千反을 諸彥에게追加贈呈하게됨을 깃부게生覺한다 더욱 贈呈方法은 左記의大懸賞募集規定을 一覽하라

優雅で上品な 京染 あかねモス着尺

愛國纖維로서大流行의 日東紡高級品

濠毛防止 追加賞品！ あかねモス着尺一反宛……貳千名 追加進呈



この豪華な大賞品

特等(左記の內何れか一品贈呈)……貳百名
·姿見鏡台一台 ·蓄音機(ポータブル)一台
·金糸入丸帯一本 ·特選訪問着一着
·籐椅子セット一組

壹等(左記の內何れか一品贈呈)……貳百名
·フランス人形一個 ·富士電機時計(丸型十吋)一個
·流行防水コート地一反 ·婦人服裂地……一着分
·オペラグラス一個

追加準壹等 あかねモス着尺(一反宛)貳千名

貳等(左記の內何れか一品贈呈)……參百名
·新型バニティケース一個 ·プラトン萬年筆一本
·電氣コテ一個 ·クラブ化粧品詰合函一函
·頭文字入アルバム一冊

參等(左記の內何れか一品贈呈)……五千名
·クラブ洗粉(特大) ·クラブはき白粉(別形)

四等(左記の內何れか一品贈呈)……壹萬名
·クラブ煉齒磨(中型) ·クラブ美の素石鹼

五等(左記の內何れか一品贈呈)……參萬四千三百名
·潤質牛煉クラブ齒磨(新式大袋) ·カテイ洗粉(布袋入)

懸賞課題

거칠살、벗겨름、白粉下에第一조코 綜合호르몬을含有한大評判의 젊어지는 크림은무엇인가?
㋑ クラブ○○クリーム
젊어지는効果잇는特殊原料中의하나는무엇?
㋺ クラブ綜合ホ○モ○
○속에適當한文字를너흐면解答이된다 (イ)(ロ)中一題도조흠

解答쓰는법 (一人이몇장이든지應募할수잇다) 구라부美身크림、또는 구라부淡白크림、구라부콜드크림 藥用구라부美身크림의 外函裏面(別紙用紙도조흠)에右懸賞課題解答과 住所氏名을 明記하야 買上한店舖로 보내시오 直接本舖로 付送할時는 封筒에너허十五瓦(約四匁)마다 三錢切手를貼付하시오 抽籤하야 下記의大賞品이 當籤된다。

送先……大阪市浪速區水崎町 또는 東京市京橋區銀座橋際 (郵稅不足分은接受치안흠) 中山太陽堂 구라부美身크림懸賞係

締切……昭和十二年二月末日

發表……昭和十二年三月下旬

求買는 구라부美身크림大懸賞賣出 포스타-를揭出한全國販賣店에서

優待景品은買上하시는店舖에서即時進呈

買上과同時에進呈하는 **御優待景品**
구라부煉齒磨(小型)·구라부乳液(普及瓶)
구라부粉白粉(普及型)·구라부洗粉(試用袋)
어느것이나一品 구라부부라랑(試用型)

妓生送迎料解決

기생의 왕복인력거삯에 대하야 권번과 료리점사이에 분쟁이 잇다함은 긔보한바이어니와 그후상방이 협상한 결과 기생이 료리점으로갈때에 타는 인력거삯은 권번에서 맛고 기생이 집으로 도라올때의삯은 료리점이 맛기로 원만히 해결을 보앗다한다

職業婦人에喜消息

東大門婦人病院內 托兒所設立

米國人慮善福孃의特志로

總工費萬二千圓으로落成

직업부인이나 가정부인에게새로운 복음이될 『애기바테 걸트』는데록 탁아소(托兒所)가 서울에생겻다—요지음 동대문부인병원(東大門婦人病院)안에는 새로이층건물이 하나 세워진우에『경성탁아소』(京城托兒所)라는간판이 부터서 지나가는사람들의새로운 시선을 끌고잇다

이것은 미국부인 로선복(盧善福)양이 지난번 아동보건후(兒童保健會)를 세운남어지 한가지 그에 떨으는사업을 하지안흐면 아니되겟다생각하고 이탁아소라는 것을 부대사업으로 세운것인데 총건평이 일흔네평으로 그공비가 일만이천원가량 드럿다한다 이탁아소의 사업은

첫째—직업부인이나 가정부인으로 틈업시 바빠서 애기를 기루수업는경우

둘재—애기들의위생에 치중해서 충분 견고하게 기르려는

경우에 가장칩한 로동을맛고 마타서길러주고 도와질이 모든것을해주는것이다. 이탁아소는 위선설비를 한도하고 바들터로 아직 개관을 아니하고 잇스나 아프로 언제든지 지원하는사람이 잇슬때에는 친절하게 수용을 준비를 정돈하고잇다한다. 이탁아소에 맛길 애기의자격은 별것업고 다만 난이로부터 다섯살까지면 남녀를 판계안코 밧게되는데 그로금은 밤낫을 헤아리지안코 길러주는데는 최저 십오원으로부터 최고삼십원까지고 아침에갓다가 때저다가 저녁에 차저가는경우에는 팔원가량으로해서 장정성을 다해서 양육해주리라한다 (사진은탁아소와로양)

年末當한交換孃

加入者에呼訴는이러타

쓸대업는弄談은絕對謝絕

까닭모를火症도頭痛

년말의 비뿐때를 당하야 전화의 대답이늣다 혹은 전화번호가틀리게 걸렷다는 등으로 전화거는 사람들이 전화국교환수들에게 꾸지람 흑은욕설을 하게되는수가 만흔데 이긔회에 전화교환수들은 그들의 서러운사정을 호소하고잇다 경성시내세곳 전화국삼백사십명의 교환수들의 희망과 불평을드른면 여러가지가 잇는데 그중요한몃가지를들면

◆전화를 거는이가 번호를 그릇말하고서 도로혀 전화교환수에게 틀렷다고 화를내는 사람도잇고

◆이야기하는중이라고 대답하여도 거즛말 마러라하면서 함부로 꾸지람하는 사람도잇고

◆바뿐 교환수를 상대로 공연히 롱담을 거는이도잇고

◆전화번호안내하는늑북백번에 대하야 어느골목 어느쪽으로 들러서 어느집이며잇는 어느상점의 전화번호는 몃번이냐고 무르면서 직업도 성명도 모르는이가 잇스므로 알수업다고 대답하면 그리고서야백번의 가치가 업는것이 아닌가고 꾸짓는 사람도잇고 심한사람은 셋집이 어듸업는가고 못는이도잇고

◆어떤이는 전화번호는 갈조사하지안코수화기(受話器)를먼저 귀에 대고서 전화교환수에게 『여보여보』하면서 부르므로교환수는『네』하고 대답하면 『저—』하므로 또『네』하면『저—』하므로 또 교환수는 『네』하면 그때에야『이천삼백사십오번』이라는 식으로 전화번호를 말하게되여 그사이에 시간을 랑비하게 하는이도 잇다한다 그러므로 이상 모든점을 특별히 고치고 주의해주기를바란다한다

太平通空家에 行旅病者屍

구일오후두시경 시내 태평통(太平通)이정목 일백이번지 빈집에 약삼십세가량되는 조선남자가 [illegible]으로 죽어잇는것을본정서원이 발견하고 시체는 경성부청으로 인도하엿다고한다

本町署食料品檢査

시내본정서에서도 수일전부터

不正理髮業者—

料金을함부로割引코引客

龍山署管內서三人을處分

요지음 룡산서관내에잇는 리발업자들사이에는 흔히 규정료금을 무시하고 함부로 료금을 이십오전혹은 이십전으로 떠러트려바티서 일반영업자들에게 큰타격을줄뿐아니라 료금을 싸게밧는니만치 설비를되는대로해서 위생상의해가 적지안타는 고발이 자조드러오므로 그서에서는 이것을 내사하고잇는중 과연◆漢江通[illegible]番地李海英◆同町[illegible]番地李鍾失◆孔德町一四八의一四號朴仁在 등 세명이 전긔와가튼 범규에저촉되는일을 하고잇는사실을 발견하고 여드렛날이칠 그서위생계로 불러다가 톡히설유하고 만약 그런사실을 발견하는때엔 용서업시 페업처분을 내리리라한다

南大門市塲問題에

府當局者는冷情

甘蔗府尹과一問一答

경성중앙시장개설로 떨미암아 남대문시장 상인들은 장차 그들에게 미칠타격을 예상하고수차 그대책을 토의하여오든지음에 팔일밤에는 드듸여 림시총회를열고 중앙사매시장 개설장소부근에 기지를 주선하야 남대문시장 영업자들을 그곳으로 옴겨서 종합소매시장이 실현되도록 하여달라는 교섭을 경성부당국자에게 하는동시 그건설비(建設費)를 준비하기로 결정하엿는데 이것의 성공여부는 기필하기 어려우나 력사적전통을 가진 남대문시장 상인들의 사활문제에 관계되는바이므로 자못세상사람의이목을끌게되엿다 긔자는 이문제에 관련하야 구일오후 경성부윤실에서 감자(甘蔗)부윤을맛나 다음과가튼 문답을하엿는데 부당국자는 아직껏 남대문시장 상인들의 생활에영향미치는 당면의 긴절한 문제를 충분히 리해하지못하고 잇는 모양이다

긔자 남대문시장 상인련합회에서 팔일밤에 총회를열고 중앙사매시장이 실현되는때는 남대문시장은비록존속된다드라도 자연히쇠퇴하게될가능성이 만흐므로찰아리 남대문시장권리를 거두어버리고 그중앙시장부근에종합시장을 설치하도록하야 그리로 옴겨가서 장사를 하여가는것이 안전한 방책이라고 생각하고 그건설비용을 맨드는 동시에 경성부당국에 대하야 그필요한 기지를 주선하여달라고 교섭하기로 결의하엿는데 부윤은 이에 대하야 어떠케할 생각인가

부윤 아직 남대문시장상인련합회측으로부터 아모말도 못드럿스나 그것은 좀연구해보아야될문제인데 기지는중앙사매시장에 소용되는것만케 더남을것이 업슴으로 용이치안흘 일이다

긔자 남대문시장은 부윤도 잘아는바와 가티 조선에서 상당한 오랜력사를 가진 유명한 시장인데 명년사월에 영업허가긔한의 만료로 시장규측상으로는 폐지될 운명인데 부윤은 이 력사적시장을 더 회중쇄신하야 경성부민의 일용식료품구매에 편의를 주게할수 업겟는가

부윤 시장경영긔한의 연장흑은 허가갱신의권한은 도지사에게 잇스므로 부윤으로서는 어떠케할수는업스나 비록 시장규측의 적용을 밧지안는다드라도 시장과 비슷한형태로 상점을 즉—라렬하야 상점가(商店街)로서 존속해 가드라도 조치안홀가 생각한다

긔자 부내에는 일용품공설시장(公設市場)이 두서너군데 잇지마는 조선사람에게는 별로히 리용되지못하고 또한 리용할려하여도 리용될물품을 파는 상점이 별로업서서 결국 편벽된 형태를가지고 잇는측 종로부근이나 거리두서너곳처 당한장소에 조선사람의 일용품에필요한 공설시장을 설치할수업겟는가

부윤 대단히 조흔의견이나 시장을설치하는데는무엇보다도기지가 문제이므로차차연구하여보겟다 그리고 남대문시장 문제에 대하여는 장차조흔 안(案)이 생각되면 다시이야기하겟다

東西公設質屋 十一月貸出增加

중산계급이하 생활자에게 가장만히 리용되는 경성부 공익질옥(公益質屋)의 십일월중의리용상황을보면 대출(貸出)이나회수(回收)나 모다 작년 십일월보다 증가하엿다 대출수는 부동(東部)질옥에 일천이백팔십일인 서부(西部)질옥에 팔백구십칠인이며 대출액은 동부는 오천구백오십팔원 서부는 사천오백삼십원팔십전인데 대출인수는합계 이천일백팔십사인으로 작년 십일월보다 이백팔십칠인이 증가하엿스며 대출금액은 한개월 만사백팔십삼원팔십전으로 작년 십일월보다 일천사백오원이 실전이 증가하엿다

그리고 회수수(回收數)는 동부는 일천칠백구십일인 서부는 일천오백사인으로 합계 삼천이백구십사인인데 작년십일월보다 일백사십사인이 증가하엿스며회수금액은 동부는 오천구백이십삼원사십전 서부는 [illegible] 일만이천이백삼십원팔십전으로 작년십일월보다 [illegible]원사십전이 불어섯다

仁川埠頭에上陸하는

年九千頭의生豚

家畜市塲建設具體化

【仁川】작년도에 무역액 이억원을 돌파하얏다하야 긔념식까지 거행한지 일년이 못되야 금년에 들어서 십개월간의 무역액이 이억원을 돌파한만큼 인천의 발전은 점점 부화하고잇는것과 한가지 긔록중의 출입품중에 충청도(忠淸道)근방의 생돈(生豚)수입이 격증하야 작년도에는 인천상륙두수가 구천두를 돌파하야 추동긔(秋冬期)에는 곡물과 한가지 적지안흔 장관을 일우키고잇다 인천부에서는 이에 대한 시장을 건설하고자 다년계획한끄테 금번도 예산이 통과되야 도당국에 출원하엿다 이것이 발서 도당국으로부터 허가될 뜻을 보히주게되야 불일 송판정(松坂町)편 축소종축 마사(馬舍)에 사천원을 비로착공하야 늣저도 명춘까지는 준공되리라는데 이로써 골목골목마다 도야지떼를 몰고다니며 매매하는 폐단도 업서지리라한다

纛島沿江民

生活의慘狀

去夏水害의影響莫大

【纛島】서외뚝섬은 일천이백여호가 현주하는 곳으로 전호수의 팔할가량이 강변로동과 운반업에 종사하는세궁민들인데 해마다 첫가을부터 결빙될때까지 짧은동안에 밥도먹을새업시 로동하는임금을 저축하야서 그이듬해봄 해빙될때까지의 일체생활비를 버텨두고엄동설한도 무난히 지나든곳이나 그러나 금년에는 과동은커녕단하루도 지날만한 형편이못되여 벌서부터 그들의과동생활문제가 우려되고잇다 이제그내용을 들으면 지난팔월중으로 연겁허 두차례의 큰장마로 상류에서 목재를 류실하야 수십만원의 손실을 당한관계로 목재적치쟁이 태반도못될뿐아니라 시탄등물의 도착물이 근소하여진까닭이라고한다

露積겻섬崩壞

七十老人壓死

仁川花町의慘事!

【仁川】등겨섬에치여죽은 참사로인=인천부화정(仁川府花町)역무(力武)정미소구내에 등겨약삼만석을로적하엿든바 이를화정(花町)이정목일번지 림병권(林秉權)최재득(崔再得)량명이 매수하야 일반소비자에게분매하든중 지난팔일오후 삼시삼십분경에 로적하얏든등겨섬이문허저 그미테서 일하고잇든 인부삼명과 겨사러온도산정(桃山町)팔번지 리성근(李聖根)(七○)이란로인을 치여 부중경상을입히엿는바 그중에 칠십로인리씨는 중태에빠젓슴으로 그즉시목뢰(牧瀨)병원에입원 치료중이든바 구일아츰에마침내 절명되엿다한다

運動競技

떼스庭球日程

明年度 떼비스컵爭霸戰은 保持國英國庭球協會에서 다음과가티 日程을決定發表되엿는데日本에서도 山岸選手外數名이 參加하기로되엿다

【歐洲존】一次戰=五月四日까지終了▲二次戰=五月十六日까지終了▲三次戰=六月八日까지終了▲準決勝戰=六月十七日까지終了▲決勝戰=七月十二日까지 終了【인터—존次勝】七月十七日…十九日…廿日의사이에擧行【最後決勝戰】七月廿四日…廿六日…廿七日에擧行

女子選手年齡制限

【뉴욕六日發電】『푸스톤』에서열린A·A·U大會는 水泳及『다이빙』女子選手의年齡을 十二歲以上, 其他競技에잇서서는 女子選手의年齡을 十五歲以上으로 決定하엿다

匈牙利蹴球勝捷

【다부린六日發同盟】愛蘭對匈牙利國際蹴球戰은 六日當地에서行한바 匈軍『롱때스』로 猛烈한肉彈戰을演하드니 三對二로匈牙利軍이勝捷하엿다

世界陸上廿傑 1936年度【7】

◇高障碍競走 【◎印은 世界新記錄】

1、타운스(米國)◎一三秒七
2、스테—리(米國)◎一四秒一
3、코—프(米國)一四秒二
4、카코파트릿크(米國)一四秒三
4、뽀라—드(米國)一四秒三
4、리드맨(瑞典)一四秒三
4、모로—(米國)×一四秒三
9、오스굿드(米國)×一四秒四
9、후인레—(英國)一四秒四
9、할프레스(米國)一四秒四
11、칼드마이야(米國)一四秒五
11、오코나(加奈)一四秒五
11、모—간(米國)×一四秒五
11、무—아(米國)×一四秒五
11、크룸스톡(米國)×一四秒五
16、그린—(米國)一四秒六
16、레—라(米國)一四秒六
16、G·모리스(米國)一四秒六
16、J·모리스(米國)一四秒六
16、쉬스펜드(芬蘭)一四秒六
16、펄—(南阿)一四秒六

【註】×印은 二二○碼障碍記錄에다 ○·一秒를 加하야 推定한것

新年特別附錄

本報가 躍進에 躍進을거듭하고 잇는것은 滿天下 讀者諸氏의 支持와 贊成에 依함이어니와 新年丁丑을 마지함에 當하야 本社는 讀者諸位의 平素의 恩惠의 萬分의 一이라도 報答할 意味에서 本紙 新年號에『그림달력』을 發行하야

이『그림달력』은 朝鮮畵壇中堅 無號 李漢福、鼎齋 崔禹錫、灘月 金景源、靜齋 吳一泳、四畵伯의 力作인 春夏秋冬 四季畵에 日曆과 月中行事를 配한것으로서 朝鮮日報讀者가 아니면 엇기어려운 賸物이오 各家庭에서는 書齋나 居室에 걸어서 趣味와 實益을 도울資材가될것을 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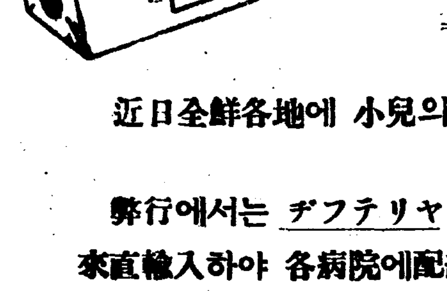
朝鮮日報그림달력

U.S式寫眞製版 高級옵세트多色刷 別鹿上質紙鳴目發

一月一日現在 讀者諸氏에게 無漏 進呈하기로 되엇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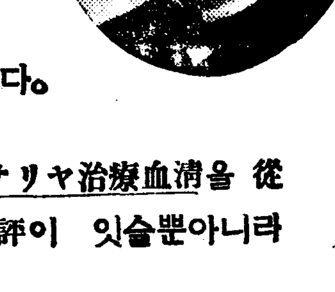
畵幅內容
(春) 春庭一昧 灘月 金景源
(夏) 鞦韆 無號 李漢福
(秋) 凉秋溫情 靜齋 吳一泳
(冬) 雪中歸巢 鼎齋 崔禹錫

朝鮮日報社



佛國パストール研究所

チフテリヤ 治療血清



近日全鮮各地에 小兒의生命을 威脅하는 チフテリヤ가 大流行하는模樣입니다。

弊行에서는 チフテリヤ治療에 가장卓効가有한 佛國パストール研究所チフテリヤ治療血清을 從來直輸入하야 各病院에配給하고 其効力에對하여서는 一般醫學界에서 이미定評이 잇슬뿐아니라 其功獻이 莫大합니다。

此血清은 血清의原理를 發見한醫學界의—아니 全人類의 恩人인 佛國パストール博士의研究所에서 精製한것으로서 効力確實하고 血清病을 誘發치아니하며 濃縮血清임으로 使用하기에 極히便利하야 實로 チフテリヤ治療에 其偉効가 絕大합니다。

기不幸히도 家族中에서 此チフテリヤ에 感染한분이게시거든時急히 貴治療醫師에 此佛國パストール研究所チフテリヤ治療血清에對하야 相議하시고 即時 投藥을 바드서서 後悔가 업게하시를 바랍니다。

佛國パストール研究所總代理店

外國藥品直輸入發賣元 株式會社 柳韓洋行

京城·大連·上海

연지 白粉이업서도 아름다운毛髮이야말로 女性이가진 굉장한魅力이다

金鶴香油

株式會社 野村商店

産業

海苔와牡蠣의 增産에一層拍車
海苔試驗場의機能을擴充强化
垂下式牡蠣養殖法을指導奬勵

朝鮮海苔는 年年飛躍을 遂하야 昨年中의 産額은 實로 七百三十萬圓에 達하야 日本內地의 生産額에 匹敵하게되엿다 特히 全南、忠南兩道가 首位인데 總督府水産課에서는 더욱 斯道에 拍車를 加하기爲하야 現在 前記의 全南、忠南二道에잇는海苔試驗場의 機能을 强化하는同時에 他道에도 漸次 試驗場을 增設하기로되엿다 그리고 牡蠣의 年産額은 七十五萬圓에 達하는바 主로 全南、咸南、慶南이 中心으로 其內 四十萬圓等 養殖牡蠣가 占하고 또 垂下式牡蠣養殖方法은 元山方面의 淺海에서 實施하고잇는데 極히 有望함으로 水産課에서는 그增殖指導에 今後 積極的으로 進出하기로되엿다

畜 行하기로 決定하엿는데 그 主要行事는 다음과갓다고한다
一、農事試驗所의性能擴充
一、土性調査의開始
一、配合肥料의奬勵
一、畜牛、緬羊、産馬、養豚、養鷄等 有畜農事의 積極的指導奬勵
一、養鷄其他副業奬勵
一、優良種子優良作物의普施
一、土地改良及水田整理
一、金融方面의改善

慶北서畜牛奬勵

慶北道에서는 道內金融組合으로하야금 多額의 低利資金을貸付하야 耕牛購入奬勵에 注力하는一方 農家經濟生活의 向上에 苦悶하고 잇다한다

又復二千瓲의 "밀"을直輸出
清津으로부터米國에

朝鮮産밀은 曩者 三菱의 손으로 清津으로부터 米國에 二千瓲의 直輸出을하얏는데 繼續하야 二千瓲의 入荷가잇서 三菱에서는 日食、清津粕、林兼、公海興産에 準備식히어 十日發清津으로부터 直輸出을行하기로되엿다

安東水害復舊費 四萬二千圓決定

慶北安東郡管內에서는 去八月中에 前古未聞에 前後二次 大水害關係로 因하야 其被害總額百十五萬二千九百七十二圓에 達하얏다는데 其後 一般郡民等은 當局에 對하야 其復舊救濟事業의促進을 熱望期待中이든바 今般當局에서는 其復舊救濟事業費를 決定發表하엿다는데 其事業의 種別及 工費勞賃의 內容은 다음과갓다
▲道路工費二四、五五八圓七十五錢 同勞賃一九、六四七、〇〇▲河川工費一一、三一九、〇〇 同勞賃九、〇五五、二〇〇▲堤防工費六、五〇〇、〇〇 同勞賃五、二〇〇、〇〇 ▲合計勞工費四二、三七七、七五錢 同勞賃三三、九〇二、二〇錢也

全北道麥增産計畫

全北道에서는 田作改良就中重要視되는 麥增收에 對하야 昭和六年度부터 十二個年計畫으로 耕地面積의 一割二分七厘增加인 八萬五千町步 增殖計畫을 樹立奬勵中이든바 成績이 豫想外로 良好하야 十二個年計劃이 不過五個年만인 昭和十年에 計劃面積을 超過한 八萬七千五百十三町步에 達하얏음으로 此趨勢에鑑하야 一層努力을 하야 今年度에는 裏作奬勵를 行하야 今年度에는 更히 相當面積의 增殖을보는中이며 今後第二段의 增殖計劃을 樹立코저 爲先 各郡의 意見을收合中이라한다

京畿鷄卵共販量
直接販賣가增加하야 三萬八千貫으로減少

京畿道畜産同業組合의 今年一月以來 十月末現在 道內組合員의 鷄卵共販取扱高는 三萬八千貫가량으로 昨年同期에 比하면 六千貫가량의 減少인데 그主要한 原因은 京城府近郊의 生産者가 直接消費者에게 販賣하는 量이 增加하게된때문이라고한다

科學的營農을 咸北서指導方針

咸北道農務課에서는 農法이寒冷한 地方의 特異性에 不合한點에 着眼하고 縱橫으로 硏究한結果 科學的結論에 到達하엿슴으로 明年度부터 劃期的指導

光陽棉花極凶

【光陽】棉花增産計畫에伴하야 價格도 相當히 好調를 持續하고 잇슴으로 光陽農村에서는 棉花增産機運이 더욱 旺盛하야 非常한 進展을 示하고잇는此際 過般의 風水災害로 因하야 莫大한 減收를 보게되엿다는바 이제 郡農會에서 販賣하는 狀況을보면 昨年度販賣高가 三十二萬五千斤에 達하던것이 今年에는 共販開始한지가 벌서 一個月以上이나되여도 出廻數量이萬餘斤에不過함으로 前年에比하야 激減을보게되여 農家의 打擊이 甚大하리라고한다

簡易한加療法
養鷄家의 아라둘일 (鷄産)

오래동안 養鷄에 從事하는 이는 알이 나올듯 나올듯하면서도 나오지안는 雞産鷄를 보리라고생각한다 이 雞産에는 適當한 療法이업서 大體 廢鷄로 放賣하든가 그대로 放任하야 斃死케하는일이만타 이雞産은 他病과 달라서 每年發生한다든가 傳染한다든가 하는 무서운 病은 아님으로 等閑視하기쉽다 그런데 이雞産이 웬만한 普通鷄에 이러나면 問題가업스되 優秀한 種鷄等 更히 여기는 鷄에 이러나면 큰頭痛이될것이다 그럼으로 養鷄家로서 아러둘 簡易한 加療法을 하나 紹介하야 두려고한다。

雞産鷄가 생긴때에는 淸酒十瓦가량을 雞産할때에 毛筆가튼것으로 발라주고 또 十瓦가량을 먹인다 그런뒤조용하고 컴컴한곳 녀름이면 서늘하고 겨울이면 따듯한곳에 가두리가튼것으로 더퍼둔다 그리하면 雞産으로 苦悶하든鷄도 半時間이나 一時間가량으로 産卵한다。

山羊의除角
品種改良上有效

山羊의 角은 鹿이나 緬羊等과가티 野獸로서 生存한當時부터 害敵에對한 武器로서 備한것이다 山羊을 家畜으로 飼養하게되자 突然變異로 無用의 個體를 生하게되어 改良上 貴重한 變異하야 改良에 努力하얏스나 아직 有角山羊이 적지안타

除角手術의目的

山羊은 繁殖改良에잇서서도 有角의것이 적지안타 그런데 有角의것은 飼養管理上 또는 外見上 그價値가 無角의것에 比하야 훨신떨러진다 그러나 이에對하야 除角手術을 施하야 巧妙히 除角한것은 無角山羊과 조금도 다름이업다 이로 除角手術이 山羊改良上 얼마나 有効한가를 알수잇다

手術의時期와注意

生後二十日乃至一個月後 角이생기손가랑 꿋만하게되는때가 適期이다 一般으로 일을사록 手術은 容易하나 再發할 念慮가잇슴으로 그手術의 程度는 技術로서 鑑識을要하다 特히生後一個月을 經過하야 角이二糎以上으로 커지면 手術에 相當히時間을 要한다

除角手術의方法

一、山羊을 一人乃至二人가량이 움지기지못하게 잘 固定할것
二、角部의 周圍에잇는 털을 가위로 잘 깍글것
三、苛性加里五瓦에 水五滴을 加한 濃厚液을 꿋꿋한 在來의 가마솔가튼것으로 局部에 塗附할것
四、布片으로 藥液과 破壞組織을 除去할것
五、再次藥液을 塗附하고 前記 솔로 局部의 組織을 破壞할것
六、布片으로 藥液과 破壞組織을 除하고 再三藥液을 塗附하는데 솔로 局部의 組織을 破壞하지안코 手術에 注意하면서 反覆하야 藥液의 作用程度를보아 布片으로 角을 쥐어 除去할것
七、準備하야 두엇든 인두를 시뻘거케 다라서 局部를 注意하야 지질것
한번 除角手術을하야도 角이 生長하면 手術法이 適宜치못한탓이니 再手術을하야 修正할것이다

除角中의注意

以上述한바에依하야 完全히 除角을 完了하는것이나 山羊은 手術中 苦痛과 놀램으로 不絶히 呻吟하는 소리를내는 때 이를 걱정할것업시 完全한 手術을할것이다

鹽粕賣行好調 價格도자못堅調
豆、粕高、金肥統制影響

鹽粕은 今年初期以來 金肥低價로 賣行不振이든바 十一月下旬以降 一、豆肥、油粕等의 植物油粕에 比하야 顯著히 割低하게되엿슴으로 一、金肥의 統制法을 압두고서 不安定한것 等으로 日本內地의 買進이잇서 三菱、油肥販보다 頓挫로 販賣를 進行하야 三菱과 如한곳은 十二月上旬까지에 約九百餘口、八十萬限量 販賣하얏다

▲公州 忠南公州郡 畜◇蠶◇鷄◇信 … 合하야

忠北서緬羊奬勵

忠北道當局에서는 農家의 副業으로 緬羊의 飼育을 奬勵하고자 昨年부터 道農事試驗場에서 試育中이엿섯는데 其成績이 良好하리라는 自信을得하야 農家에서 飼育하야도 좃타는 結果가 …

北朝鮮坑夫難

北朝鮮地方의 京鑛坑夫難은자못 深刻하야 目下 一日平均一圓二三十錢의 勞賃을 支拂하는狀況으로 坑夫不足으로 中國人을 使用하려는希望이 强硬하게되어잇다 總督府로서는 中國人의 入植을 容易히 許치안코 水害罹災移民을 奬勵하고잇스나 移動性이 만흠으로 各鑛山 모다 苦悶하고 잇다한다

日用商品市況

八日 京城市內 雜穀市況은 如左하다

▲大豆 暴騰後一服
滿洲大豆는 國內消費 約十萬噸增加豫想과 歐洲輸出 旺盛으로 連日暴騰하야 所謂天井不知의 時勢이든바 昨夕頃부터 一服狀으로 一時高價에서 約三十五錢(百斤當)反落하야 今日은 要方對時로 保合이다 當地도 滿洲大豆 一高一低에 影響되여 迷深不知이다 今日의 左記時勢로 昨日高價에 比하야 廿錢反落되엿이다

龍山三等 二〇、一〇
漣汶長 一九、八〇
金汗 一九、五〇

▲粟 暴騰
滿洲特産大宗인 大豆漸騰으로 滿商、農村人氣 急硬化하야 一時放치아니함으로 賣買되지는 每日二、三十錢式 暴騰되엿다 今日時勢는 左와如하나 高

京城 同 一四、七〇
四平街 同 一五、三〇

▲大麥 不變
他雜穀高도 別無影響으로 時勢不變 價에는 買氣업고 閑散狀態이다

▲小麥 保合
外麥은 英國食糧局新設 小麥大量買付說로 連日漸騰되나 當地는 大端閑散하며 時勢도 强含保合程度에 不過하다

沙里院 二〇、八〇
新幕 二〇、六〇

▲胡麻 沸騰
南京方面은 歐洲油價暴騰하야 輸出旺향으로 到底히 採算이되지아니하며 滿洲도 大豆高로 漸稀少하야 連日 續騰이다 今日時勢는 一時低價에서 約一圓五十錢高이다

京城 (十二月八日)
◇菜蔬類 ◇果實類 ◇家畜飼料 ◇養鷄用鐵網 ◇毛皮類 ◇川魚類 ◇家畜類 ◇其他副業品
【朝鮮副業協會調査】

社會事業協會收合 水害義捐金

▲七、八五 紅峴支局經由 (十二月七日現在 累計五〇九、六二九〇一)
▲六〇、〇〇 福岡相愛會本部 (福岡市千代町二二)
▲一四、〇〇 昌信幼稚園
▲二〇、九〇 靜岡在留朝鮮人有志 (靜岡縣田方郡熱海町和田)
▲二六、七〇 朝鮮人親睦會員一同 (惠須取町大平區山)
▲一九、九〇 龜城支局經由
▲五八、九〇 進永支局經由
▲六、七〇 廣州支局經由
▲一〇、〇〇 赤峰朝鮮人會 (熱河省赤峰)
▲一二、二九 東田町有志一同 (大阪市港區東田町五의五)
▲三、六七 洪原支局經由
▲五〇、一七 四平街支局經由
▲五、五〇 在東京高敞學友會 (東京市神田區小川町)
▲二九七、九九 東京支局經由
▲一八六、九〇 朝鮮水災救援會 (神奈川縣)

雙虹舞 【58】

方仁根 作 金奎澤 畵

새길(一)

며칠후에 고지원은 서울로 호송되엇다。 광훈과 명월은 무죄석방이 되엇다。 며칠은 몃번차 조만 바귀다。 은영은 며칠동안 경찰서를 예하라면서 문턱이달케 들나날다하엿다。 명월은 나와서도 여러날 자리를하고 누워서 꼼짝아니하엿다。 기생면허장을때 올것이나 특별융서를 하기로하엿다。 그것은 물론 요리집주인이 이 명월에게 돈을 데우기과 운동을 하까닭도잇다。 광훈은 몸도 괴롭고 맘도괴로워 학교를 여러날 가지못하엿다。 배후에래 식과 경우와 민준의 활기잇는 운동은 개시되엇다。

하로는 교장이 불러서 광훈이가니 뵐서 하학을하고 학교는 텅븨이고 사무실에 교장혼자 만남어잇섯다。

학교운동장에는 라엽이 몸부링을하며 굴러다니고 호원꼿바레는 꼿나무가 모두마르고 잎그러지고 불성모양이엇다。 교장은노부도요(延豐)라는 이름가진는데 키가잘달막하고 얼굴에는수염투성이엿다。

「이번엔 의외에변을 당해서얼마나 고생하엿소」

하고 교장은 말을 끄내엇다。

「뭐별고생은 업습니다마는 여러가지로 미안하게되엇습니다」하고 광훈은말하엿다。

「그런데 림선생! 이번일이상당히 문제꺼리가 되는모양인데요 림선생입장이 매우곤난하게 되엿소 나개인으로는 뭐그다지중대시하지 안치마는 그것도 교장되엿잉으로는 좀재미적고…… 그보다도 군당국에서나 경찰당국에서도 주의가잇고 또 학부형간 교사측 학생측 민간측할것업시 모두 물론이 재미업게 되는모양인데 나로서는 좀 곤난한데요」하고 교장은 어물어물하엿다。

광훈은 가만히 안저잇섯다。 교장의말이나 떠드러보랴고 하는것이엇다。

「그런즉 요컨대 여기에는 림선생맘하나에 달렷단 말이요 —지금 좀놀기는 햇지만……」

「분명히 말슴하십시요 권고사직입니까」하고 광훈은 부드러우면서도 날카롭게 말하엿다。

「아니 뭐 이롤테면……」

「뭐 그건 염려마십시요 나도 미리 각오한배가잇스니까요 학교교사는 오늘부터 사면 하지요」하고 광훈은 딱 부질러말하엿다。

「아니뭐 그러케 속히 사면할 것까지는 업고」

「아니오 피차에 하로라도 속히하는것이 조흘것입니다」

「글세 그러타면 또 그러키도 하지만……작우간 그러케 되다면 여간섭섭한게 아닌데」

「사실 섭섭합니다」

「나로서는 림선생을 퍽 유망하게보앗는데 이러케되다는것은 여간 유감이 아니란말요」

「………」

「아프로 잘 근신하고 잇스면 또 무슨될도리도 잇겟지요」

「그럼 오늘 내것은 다가지고 가겟습니다。뭐 별것은 업습니다마는」

「그거야 뭐 천천히 하지요—월급과 기타는 나오는대로 보내드리리다 그리고 전별회도잇슬것이고—그리고 자조 만나서 의사소통을 합시다 이게다 서로 의사소통이 업섯든까닭이야」

「………」

「그리고 또한가지 주의할것은 여자문제란말이야。요전부터 말성이 만헛는데 내가 드른척하지안헛지마는 림선생이 여선생 경주씨하고 연애를 하다가 면장달과 혼인을 햇다고하니 그것도 좀 실수고 또 이번에는 림선생이 기생하고 뭐 관계가 되엿다니 교육자로서는 좀 과한짓이니까 이번엔 이런일 저런일해서 대단히 불리하게 되어 나로도 어찌할도리가 업단말이요—하여튼림선생도 새침떼이끌로빠진다고—하하하 엽복이 만흔데 하하하」

광훈은 불쾌하지마는 번명할필요도업고참고아무말을 하지아니하엿다。 그리고 책상설합을뒤저 정리하기 시작하엿다。「노부도요는」 여전히 말을 계속해서

「좌우간 녀자라는게 마물이거든, 한번맛서기만하면 해독을밧고 일생은명이 걱구로 재주를 넘는것이니까……」그것도 다림선생이 얼굴이잘생긴탓이야 나처럼 림선부리면 문제가 업지만……하하하」

하고 그는 제풀에 선이낫모양이엇다。

광훈은 드른척만척 하엿다。